

2023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귀국보고서

호주와 뉴질랜드 주요 도시의 국가 주도 도시계획·건축 랜드마크 조성 정책 분야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무국외활동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I

공무국외활동 개요

- ☐ 방문기간 : 2023. 5. 9.(화) ~ 5. 16.(화), 6박 8일
- ☐ 출장도시 : 호주(시드니) · 뉴질랜드(오클랜드)
- ☐ 추진목적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도시계획 사례 견학 및 연구 분석
 - 세계적인 청정지역의 도시공원, 녹지공간 확보 등 도시경관 향상 사례 벤치마킹
 - 일자리와 거주 균형 등을 통한 약자 동행 가치 실현
- ☐ 시 찰 단 : 총 16명(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12명, 전문위원실 직원 4명)
 - 단 장 (1)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도문열
 - 단 원(11)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허 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 수행 공무원(4) : 조성준(수석전문위원), 하미경(전문위원), 박성원(입법조사관), 유은아(주무관)

☐ **개인별 공무국외활동 업무분장**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시의원 (12명)	도시계획균형 위원회	위원장	도문열	○ 공무국외활동 총괄(단장)
		부위원장	황철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사례 조사
		부위원장	이용균	○ 일자리와 거주 균형 등 약자를 위한 정책 수집
		위 원	김영철	○ 빛 연출을 통한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례 조사
		위 원	김용일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사례 조사
		위 원	박상혁	○ 국내외 효과적 주택지 개발사례 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
		위 원	박영한	○ 국내외 효과적 주택지 개발사례 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
		위 원	서상열	○ 빛 연출을 통한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례 조사
		위 원	허 훈	○ 친환경적인 디자인 산업 육성 사례 조사
		위 원	서준오	○ 일자리와 거주 균형 등 약자를 위한 정책 수집
		위 원	이병도	○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및 지원사례 조사
		위 원	임만균	○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및 지원사례 조사
시의회 직원 (4명)	도시계획균형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 의원수행 총괄 ○ 국외출장 정책 자료수집 총괄
		전문위원	하미경	○ 현지일정 총괄관리 ○ 시찰단 보좌 및 의원수행
		입법조사관	박성원	○ 방문도시 기관별 자료수집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주무관	유은아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II

주요 일정

일시	내용	비고
5. 9.(화)		
18:55	인천공항 출발 (대한항공 KE401, 10시간 20분 소요)	항공
5. 10.(수)		
06:15	시드니 국제공항 도착	
10:00~12:00	주시드니 총영사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기관방문
13:00~15:00	로얄 보타닉 가든(Royal Botanic Garden) 현장 방문	현장시찰
16:00~18:00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기관방문
5. 11.(목)		
09:00~12:00	라이드 시의회 방문 및 시장·시의원 면담	기관방문
13:00~15:00	더 록스 마켓(The Rocks Market) 현장 방문	현장시찰
15:30~17:00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방문 및 CEO 면담	기관방문
5. 12.(금)		
10:00~12:00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방문 및 세미나	기관방문
14:00~16:00	달링하버(Darling Harbour) 현장 방문	현장시찰
5. 13.(토)		
09:55~15:05	시드니 → 오클랜드 (5시간 소요)	
5. 14.(일)		
17:00~18:00	가버먼트 가든스(government gardens) 현장 방문	현장시찰
5. 15.(월)		
14:00~15:30	오클랜드 남부 웰빙위원회 방문 및 관계자 면담	기관방문
16:00~17:00	바이덕트 하버 & 윈야드 쿼터 현장 방문	현장시찰
17:00~18:00	홉슨빌 포인트(Hobsonville Point) 현장 조사	현장시찰
5. 16.(화)		
10:15	오클랜드 국제공항 (대한항공 KE412, 9시간 소요)	항공
19:30	인천공항 도착	

Ⅲ

사전 준비 활동

☐ 공무국외활동 추진 회의 개최(1차)

- 일 시 : '23. 2. 24.(금), 10:00
- 장 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간담회장
- 참 석 자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 주요내용 : 비교시찰 주제 선정 및 주제에 따른 시찰 대상 지역 후보 논의
- 시찰주제 : 도시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방안 마련

☐ 공무국외활동 추진 회의 개최(2차)

- 일 시 : '23. 3 .10.(금), 17:00
- 장 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간담회장
- 참 석 자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 주요내용 : 비교시찰 대상 지역 확정, 방문기관, 시찰 시기 논의
- 논의결과 : 비교시찰 국가 확정(호주 · 뉴질랜드)



▲ 공무국외활동 추진 1차 회의



▲ 공무국외활동 추진 2차 회의

□ 공무국외활동 사전 전문가 간담회

- 일 시 : '23. 5. 3.(수) 11:00~12:00
- 장 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간담회장
- 참석대상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및 공무국외 수행 직원(총 16명)
- 전 문 가 : 김희성 교수(경기대학교 겸임교수) 및 여행사 관계자
- 주요내용 : 호주, 뉴질랜드 기관방문 및 현장시찰 등 연수일정에 대한 조언
시드니, 오클랜드의 도시계획 및 약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 사전 전문가 간담회(김희성 교수)



▲ 사전 전문가 간담회(여행사 관계자)

IV

기관방문 및 시찰내용

1.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0. (수)

10:00~12:00

- 방문기관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 (주소) Level 10/44 Market St, Sydney NSW 2000

-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한국-호주 수교 이전인 1953년 개설되었으며, 현재 호주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 퀸즐랜드(Queensland)주,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를 관할하고 있음

- 재외국민 보호, 민원 서비스 제공, 한인사회 위상 제고, 권익 증진 역할을 수행함

- 면 담 자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도지사협의회 김기환 소장, 임효진 부영사

- 방문목적

- 호주 및 시드니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과 시드니 간 우호 증진 관련 방안을 논의
- 시드니의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및 지원내용에 대한 방안 공유
- 도시 및 주택 정책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위임 내용 공유 및 대한민국과의 비교



나. 방문 주요내용 (주시드니 총영사관 발표내용 요약)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도지사협의회 개요〉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호주 사무소는 2004년 2월 설립, 2010년 3월부터 총영사관과 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영사 1명, 선임 전문위원 1명, 부영사 1명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음
- 호주 사무소는 ▲국제 방산 협력과 산업 교류 활성화 ▲한국의 공무원 방문 연수단 지원 ▲한국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발표 ▲국제회의 참여 ▲해외 유관 기관의 입점 네트워크 강화 등 기본업무에 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가능한 활동을 지속
- 2023년 4월 시드니에 한인 축제가 있었는데, 시드니 민주평통 지사와 민주평화통일 위원님들이 한인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이 세종 문화회관 공연단과 동행하여 성대하게 개최하였음
- 당시 뉴사우스웨일스주¹⁾ 하원 의장님과 면담하며 2023년 6월 17~18 일 개최될 서울시 세계 도시문화 축제 참석 요청 및 초청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 지원 및 중재를 하고 있음

〈호주 국가 개요〉

- 호주(濠洲)의 정식 영문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로 수도는 캔버라(Canberra)이며, 총면적은 약 760만km로 한반도의 36배, 남한의 77배 정도이나,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약 2,600만 명으로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호주는 입헌 군주제 국가로 영국의 왕이 국가 원수이고 총독이 국가 원수의 역할을 대리하고 있으며, 총리가 행정부 수장임
- 호주의 정치 행정체계는 3층 체계로 단일 연방정부, 6개의 주

1) 뉴사우스웨일스 (New South Wales) :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에 위치한 주. 주도(州都)는 시드니

(States)와 2개의 준주(Territory), 537개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호주에 약 15만 명 정도의 한국 교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8만여 명이 시드니가 속해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호주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이며, 3차 산업(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의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 이상이 1차 산업과 상업, 광업이 차지하고 있음
- 호주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21.3 호주달러로²⁾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몇 개의 파트타임 업무로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임

다. 질의 응답

- 질문: (이병도 의원) ① 호주는 넓은 토지에 여러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대두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②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분위기인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①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한 국가이며 기존 원주민인 애보리진³⁾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음. 현재 동부의 넓고 쾌적한 환경에는 백인 위주의 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애보리진들은 자연환경이 열악한 변방 지역으로 밀려나 살고 있으며 음주와 마약 문제 등으로 백인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②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관련하여 호주 국민들은 아직 영국을 어머니의 나라 및 정신적 지주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고 호

2) 2023년 5월 기준 21.3불 호주달러는 대한민국 1만 8,800원 정도

3) 애보리진 (aborigine) : 18세기 말엽, 유럽인에 의하여 식민지로 개척되기 이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던 원주민

주의 고위 공무원 및 퇴직자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영국으로 유학시켜서 다시 호주에서 정착시키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질문: (박영한 의원)** 애보리진들은 백인들의 말살 정책에 의해 현재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게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과거에 대한 잘못의 인정이나 사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보상 등의 정책적 움직임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작년 2022년 호주 연방 총선 결과 노동당이 다수당이 되며 연방 총리가 노동당에서 선출이 되었으며, 공약 중 하나인 헌법을 바꾸어 원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추진 목표를 2023년 10월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 공약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지배하여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원주민들이 백인들 사회에 진출하여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질문: (김용일 의원)**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는 호주 연방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국 청년들은 물론 타 국가 청년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호주는 파트타임 시급이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⁴⁾이므로 매력적인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음. 2023년 현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호주에 머무는 한국 청년들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 만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입국 시도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질문: (박상혁 의원)** 초창기 호주의 지방정부의 역할(권한)이 청소, 도로 관리 등에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확대되어 건축 인허가 등 확대되었다고 하였는데, 규제 및 심의에 대해 연방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모두 하는지? 한국은 지방정부의 규제 및 심의 권한은 제한적임

4)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 호주는 시간당 약 18,880원(호주달러 21.3불)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제가 알고 있기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큰 도시 같은 경우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으나, 공원 관리 사무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음.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 서울시에서 공원관리사업소 전체에 대해 관할을 하고 있는 것임. 건축 인허가 규제와 관련하여 시드니는 한국과 비교하여 인구 밀도가 낮고 토지 면적이 넓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세세히 규제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간판 및 도시 디자인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질문: (김영철 의원)** 백인과 호주 원주민(애보리진)을 비교했을 때 노동 임금의 격차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한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법적으로 규정된 임금은 시간당 21.3 호주 달러이며 고용주가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나, 홈리스 대부분이 원주민이며 이들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한 기술적 수준 차이에 의한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임

- **질문: (허 훈 의원)** 호주 내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언급했는데, 그 밖의 다른 사회적 문제는 없는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가정폭력 외에 중고등학교에서의 마약 문제,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음. 일부 지역에서 마약과 음주 단속을 하면 5건 중 3건 이상이 마약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백인과 원주민 간 빈부 격차가 심한 것도 사회문제 중 하나임

- **질문: (이병도 의원)** 화장실만 보더라도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고 일반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에 놀랐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이나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아이러니 한 것으로 느껴짐.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

이러한 사회 풍토가 조성되었는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나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잘 되어 있으나 원주민들에 대한 처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국가의 공식 석상 및 행사에서는 항상 주 총독이 ‘우리는 원주민 그들의 문화와 과거 역사를 존중한다.’라는 말을 하게끔 되어 있으며, 국기 또한 호주 기와 원주민 기 두 개를 동시에 걸게 되어 있으나, 원주민에 대한 사회적 전반에 대한 처우는 더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질문: (서상열 의원)** 호주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복지 체계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호주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소득 세율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며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45%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그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임

- **질문: (서상열 의원)** 학교의 학생문제(마약, 폭력 등),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와의 격차 등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학생 인권조례와 같이 제도적으로 정비된 장치가 있는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뉴사우스웨일스州 교육청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에서 그만큼 교육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교육의 질 측면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이는 향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가치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립학교의 학비는 1년에 약 4만 5천 호주달러 정도이나 이는 공식적인 수치이고 실제로는 공식적인 수치의 두 배 정도 지불하고 있으며 커리큘럼 역시 공립학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라. 방문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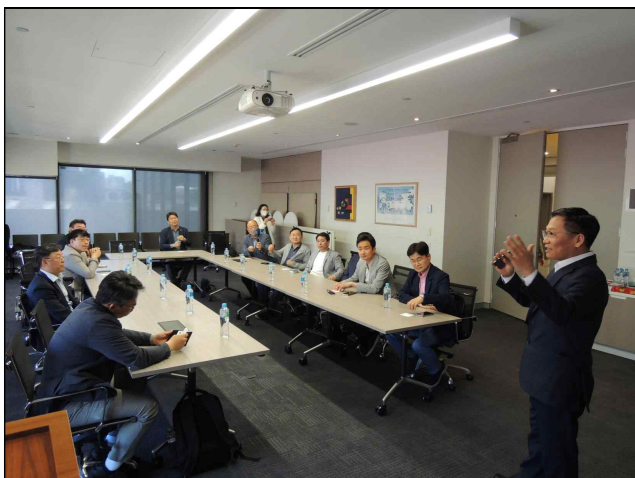
▲ 주시드니총영사관 방문



▲ 주시드니총영사관 김기환 소장



▲ 주시드니총영사관 임효진 부영사



▲ 주시드니 총영사관 기관설명 및 이슈 토론과 질의응답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주시드니 총영사관 기관방문 단체 사진

2.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Art Gallery of NSW)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0. (수)
16:00~18:00
- 방문장소 :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Art Gallery of NSW)



※ (주소) Art Gallery Rd, Sydney NSW 2000

- 1874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에 설립, 세계 각국의 사진, 회화, 조각, 공예품 등 34,00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 전시시설 외 기념품 상점, 카페, 음식점, 영화상영관, 도서관, 아카이브 등 운영
- 151년 된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을 예술, 건축, 조경이 연결된 미술관 캠퍼스로 확장하는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Sydney Modern Project)' 추진, 8년여 기간 동안 총 3억 4,400백만 호주달러(약 3천억 원)를 투입하였으며 '22.12월 재개관
-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탄생 이래 규모 면에서 역대급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건축디자인은 SANAA의 세지마 가즈요가 담당
- 면 담 자 : Sally Webster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 책임자,
Clare Eardley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 전시 및 커미션 매니저,
Chambers Nicholas 선임 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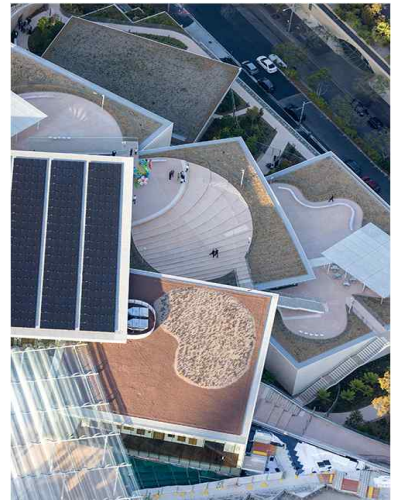
■ Sally Webster 책임자 약력

- ❖ 現 뉴사우스웨일즈 아트 갤러리(Art Gallery of NSW)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 책임자(Head of Sydney Modern Project)
- ❖ 前 Arts NSW, Historic Houses Trust of NSW 큐레이션 담당



○ 방문목적

- 시드니를 세계적인 문화 예술로 변모시킨 랜드마크(Landmark) 건설사례 청취 및 주요 전시시설 시찰
- 자연경관과 연계된 건축물 설계 및 조성,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본 건물이 미치는 영향 등 의견 교환
-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Sydney Modern Project)’ 추진 경과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노하우 공유



나. 방문 주요내용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담당자 면담 내용요약)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경과〉

- 2013년에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신탁위원회에서 미술관 확장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고, 미술관 확장과 재개관을 목표로 한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를 추진함
- 2014년 국제 디자인 콘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그룹 사나(SANAA)⁵⁾가 수상을 하게 되어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의 설계를 맡게 됨

5) 사나(SANAA)의 세지마 카즈요와 니시자와 류에를 건축가로 선정

- 미술관 신축 부지는 최저 지대와 최고 지대의 고저차가 최대 20m 정도로, 기존의 지형을 살리면서 고저차를 극복하여 건축 설계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음
- 건축 설계 상의 난제 외에도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해야만 했는데,
 - ① 우리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을 점검하는 것,
 - ②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를 통한 공식 건축 허가 절차 취득,
 - ③ 1억 호주달러(약 900억 원) 상당의 미술관 건축 비용을 추가 모금하는 것이었음
- 또한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 추진 시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은 ▲우리가 지향하는 건축적 요소의 접목, ▲지형과 대지 레벨과의 조화,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의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했음
- 특히, 지형을 많이 변형시키지 않는 설계로 건축 내부 층과 층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레벨 차를 크게 느끼지 못하게 램프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을 구상하였으며, 미술관 내 다양한 작품활동 및 전시를 위해 기둥이 없는 대공간을 조성하는 건축 방식을 채택함

〈지속가능, 약자동행 관점의 운영방식〉

- 설계 시 신규 조성하는 미술관 공간 중 접객 공간(Welcome Plaza)은 24시간 누구나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었으며, 30년 이상 장기간 버틸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재질로 지어지기를 원했음
- 미술관 신축 시 고려한 것은 현대미술과 호주 원주민 애보리진(Aborigine) 미술의 조화임. 미술관에는 총 3만 점 이상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고 국외 미술품 또한 상당한 수가 있으며, 애보리진

미술품 또한 소장하고 있으며 신관 1층에는 애보리진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음

- 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미술품과 새롭게 만들어진 미술품과의 연계 전시 기획을 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호주 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술관 신축 부지 지하에는 과거 거대 유조탱크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유조탱크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다. 질의 응답

- 질문: (박영한 의원) 미술관의 신관은 철 구조물로 건축되었는데, 철 구조물은 기후에 따라 온도가 변화하면서 건축물이 뒤틀어질 수 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답변: (Sally Webster 책임자) 우리는 건축디자인 관련 전문가이므로, 공학적 지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그러한 계절변화에 따른 철 구조물의 수축 팽창에 따른 건축물의 형태 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충분히 고려되어 건축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 질문: (황철규 부위원장) 미술관 신축 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람들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사회적 약자 또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어떠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는지?

답변: (Sally Webster 책임자) 미술관 내부를 관람하면서 느꼈겠지만 우리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위해 계단 없이 미술관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노력하였고, 디지털과의 접목을 통해 체험하고 관람하는 기회를 늘리고자 하였음

- **질문: (박상혁 의원)** 큐레이터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미술관은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며 대부분 창이 없고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전시된 작품에 집중하게 하는 등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이곳의 미술관은 대부분의 외벽이 유리창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며, 외부 공간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음. 개방형 공간 구성으로 인한 관람객의 전시 집중도 저하 등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답변: (Chambers Nicholas 선임 큐레이터)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보신 공간은 개방감이 있는 전시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개방감이 있는 공간 이외에도 한국의 일반적인 전시관과 같은 닫힌 공간 또한 제공하고 있음. 즉, 여러 유형의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임. 예를 들면, 현재 이 곳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한국인 김수자 씨의 작품이며, 작가가 개방감 있는 전시 공간을 위해 스스로 이 곳을 선택하였음. 개방감 있는 공간 조성은 전시관 밖 풍경도 예술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 **질문: (임만균 의원)** 서울시도 향후 디자인 건축물이나 미술관 건립 시 다양성 포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미술관을 설계할 때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었는지?

답변: (Chambers Nicholas 선임 큐레이터)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이곳에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행위가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 다양한 미술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것, 이를 통해 새로운 관람객들을 유도하는 것도 다양성을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질문: (박영한 의원) 현재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특별히 설계 시 의도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Sally Webster 책임자) 여기 사무공간과 외부 경치를 아름답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공간에 대한 연출 의도는 없었으며 운이 좋게 이러한 공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 미술관은 건축 당시부터 외부 지형(landscape)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지형을 그대로 살리는 건축 설계와 외부 경치를 공간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주력하였음

- 질문: (박상혁 의원) 미술관 관계자, 큐레이터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인지 아니면 민간 단체 소속인지? 만약 정부 소속 기관이라면 정부 지원금 규모는 어떠한지?

답변: (Sally Webster 책임자) 본 미술관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산하에 속해있는 주립 미술관으로, 재정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금(인건비)이 나오고 있으며, 티켓 판매 수익, 전시 수익금 등을 통해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그 밖의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음. 본 미술관 확장을 위한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정부로부터 2억 4,400만 호주달러(약 2,200억 원) 지원 받았으며 나머지 1억 호주달러(약 900억 원)는 자체적인 기금 조성을 통해 조달을 하였음

- 질문: (도문열 위원장)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싶은데, 2014년부터 8년간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억 호주달러(약 900억 원)의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모금할 수 있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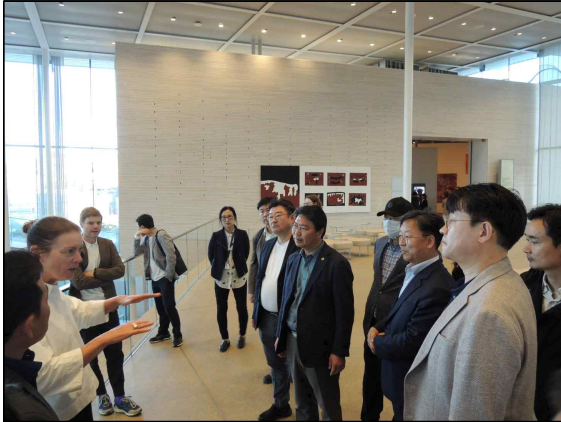
답변: (Sally Webster 책임자) 1억 호주달러(약 9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위해 우리는 특별한 전략을 구상했음. 먼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건축그룹 사나(SANAA)를 건축 설계자로 지정한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질 좋고 훌륭한 건축물이 지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기부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고 기금 모금에 기꺼이 동참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기부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하여 지원 요청을 하였음. 또한, 이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하여 역사적인 건축물 건설에 동참하여 의미를 느낄 수 있게끔 유도하였음

- **질문: (이병도 의원)** 전시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예술가 지원, 미술 교육 등)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Chambers Nicholas 선임 큐레이터) 우리는 교육과 관련한 특별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모두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음. 또한 뉴사우스웨일스 전체에서 이벤트를 연계하여 개최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

라. 방문 사진 자료



▲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기관설명 및 이슈 토론과 질의응답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기관방문 단체 사진

3. 라이드 시의회 (Ryde City Council)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1. (목)
09:00~11:30
- 방문장소 : 라이드 시의회 (Ryde City Council)



※ (주소) 1 Pope Street, Ryde NSW 2112

- 라이드 市는 시드니 근교 지역으로, 2021년 지방선거에서 한인 시의원 2명(Daniel Han, Chares Song)이 선출
- 다양성 포용정책, 자연보존 중심의 개발정책을 중요시 하며, 직주균형, 녹색인프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100년의 장기목표를 세워 개발 추진 중
- 한인 시의원의 조례제정으로 '22.2월 호주 첫 코리아타운 지정
- 면 담 자 : 라이드 시장 외 10인

- 라이드 시의회 의원 :
Sakis Yedelian(시장),
T. Brown(의원),
B. Purcell(의원),
P. Perdersen(의원),
Daniel Han(의원),
Charles Song(의원)



- 라이드市 관계자 : Wayne Rylands (CEO), Michael Galderisi (General Manager City Shaping), Evelyn Hwang(황정인, 순환경제 매니저), Peter Davis (맥쿼리대학교 교수) 외

■ Charles Song(송강호) 시의원 약력

- ❖ 現 라이드 시의회 의원
소속정당 : 노동당, 지역구 : West Ward
- ❖ 법무법인 세종법률 대표 변호사
- ❖ 시드니한인회 운영위원
- ❖ UNSW 건축시공 전공
건축 관리자(construction manager) 경력
- ❖ 이스트우드 지역 '코리안타운 지구' 지정(재청)



■ Daniel Han(한정태) 시의원 약력

- ❖ 現 라이드 시의회 의원
소속정당 : 자유당, 지역구 : West Ward
- ❖ 시드니 중고교 교사, <월간 비즈니스> 운영
- ❖ 시드니한인회 운영위원
- ❖ 시드니대학교(Univ. of Sydney) 약대
시드니공과대학교(UTS) 교육대
- ❖ 이스트우드 지역 '코리안타운 지구' 지정(제안)



■ Wayne Rylands CEO 약력

- ❖ 現 라이드 시의회 CEO
기술경영 MBA, 경영학 석사
- ❖ 前 라이드 市 'City Works' 국장
- ❖ 前 캠벨타운 시의회 'City Delivery' 국장
- ❖ 前 레인 코브 의회 'Open Space and Urban Services'
총관리자



○ 방문 목적

- 직주균형, 녹색인프라 등 라이드市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 추진 현황
- 라이드市의 도시계획, 도시재생, 다양성 포용정책(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련 내용 청취 및 시의회 협력관계 구축 방안 논의

- 기후위기 대응, 다문화 사회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정책 제안 및 방향성에 대한 토론

나. 방문 주요내용 (라이드 시의회 담당자 발표내용 요약)

〈라이드市 소개 및 협력 요청〉

Wayne Rylands (CEO)

- 라이드市는 1922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건설된 도시로 우리는 이곳에서 일하고 노력하는 한국인들을 인정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라이드 시의회에는 한국계 Charles Song(송강호) 시의원, Daniel Han(한정태) 시의원이 당선되어 활약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라이드 양 도시가 한국과 호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특히, 라이드市 맥쿼리 지역에는 혁신 공업지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하여 10개 이상의 국제적인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과 경제인들이 이곳에 방문하시어 기회를 잡으시기를 희망함
- 오늘 회의에는 맥쿼리 대학교의 피터 데이비드 교수가 함께 참석하였는데, 서울시의회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협업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를 희망함
- 라이드市는 현재 발전하고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로, 서울시와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가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 또한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계획에 대해 큰 관심이 있으며 이외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하여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

기를 희망하며 양해각서 체결을 원함. 서울이 의장 도시로 있는 세계 스마트시티기구(WeGO)에 라이드市 가입을 서울시에 요청하고자 함

〈라이드市 맥쿼리 대학교 소개〉

- Evelyn Hwang(황정인, 순환경제 매니저) : 현재 라이드 시의회 순환경제팀에서 매니저로 재직 중임. 맥쿼리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취직 전에 사회 경험을 해 주는 인턴십 제도가 인상적이었음. 한국인으로서는 보는 라이드市의 장점은 다문화에 대한 배려 정책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점이며, 한국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교민 행사도 많음
- Peter Davis (맥쿼리대학교 교수) : 현재 맥쿼리 대학에서 지속가능 분야 및 도시계획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지난 20여 년 동안 호주 지방자치단체 및 주정부와 지속적으로 일해왔음.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수자원(물)의 재활용 방안 등 연구도 병행하고 있음. 또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 방안, 스마트 전기차 활용, 탈탄소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서울시와 파트너십을 맺기를 희망함

다. 질의 응답

- 질문: (P. Perderson 의원) 서울시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과 같은 밀도 높은 도시에 어떻게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 특히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례를 알려줄 수 있는지?

답변1: (서준오 의원) 아파트(집합건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시 정부(환경부, 서울시 등)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

답변2: (서상열 의원) 아파트(집합건물)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전력망으로 송전이 가능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충전소만 설치하면 되나, 송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

으로 전력망을 구축해야 함. 이 경우 국가차원(환경부, 한국전력 등)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아파트 단위로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 의결을 통해 서울시의 전액 보조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음

답변3: (이병도 의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위치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질문: (Michael Galderisi)**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200개의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이 있는데,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800개의 충전시설을 확충한다고 들었음. 예산 조달 및 기금이 있다면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1: (황철규 부위원장) 한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급속 충전기와 저속 충전기로 구분할 수 있고, 저속 충전기만 약 2만 6천 대가 설치되어 있음. 이를 단계적으로 고속 충전기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 중임

답변2: (도문열 위원장)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질의 사항을 서면(이메일) 요청하면 해당 위원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겠음

- **질문: (박영한 의원)** 서울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국제 사회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음. 라이드 시의회에서는 다문화 정책 및 다민족 등의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함

답변1: (Wayne Rylands CEO) 라이드市는 이민자와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답변2: (P. Perdersen 의원) 호주는 73개의 다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라이드 시의회에서는 모든 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민족 정책, 이민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라. 방문 사진 자료



▲ 라이드 시의회 기관설명 및 이슈 토론과 질의응답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라이드 시의회 기관방문 단체 사진

4.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Sydney Opera House)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1. (목)
15:30~17:00
- 방문장소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Sydney Opera House)

※ (주소) Bennelong Point, Sydney
NSW 2000



-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극장으로, 시드니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로도 유명하며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음
- 1973년 완공되었으며 국제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된 덴마크 건축가 요른 웃손이 설계, 요트의 돛 모양을 되살린 조가비 모양의 지붕이 특징적임
- 세계적인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극장, 녹음실, 음악당, 전시장, 연극단, 도서관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 면 담 자 : Louise Herron (CEO), Jade McKellar (CCO) 외
- 방문목적
 - 시드니를 세계적인 문화 예술의 도시로 변화시킨 랜드마크(landmark) 건설사례 청취 및 주요 공연시설 시찰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조성이 지역 경제와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문화와 예술 활동 활성화에 미친 영향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건립 취지 및 공사비 확보, 기금 조성 등에 대한 운영 현황

■ Louise Herron(루이즈 헤론) 최고경영자(CEO) 약력

- ❖ 학력: 법학학사(시드니대학교), 법학석사(런던대학교)
-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CEO로 10년 동안 재직하였으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입사 이전에는 변호사, 법인 고문으로 일함
-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더 많은 커뮤니티와 다양한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방문객에게 개방하기 위한 리뉴얼을 단행함
- ❖ 리뉴얼에는 총 3억 달러의 재원이 투입되었으며, 건물 개·보수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함



■ Jade McKellar(제이드 맥켈러) 최고고객책임자(CCO) 약력

- ❖ 학력: 이학사(시드니대학교), 경영학사(맥쿼리대학교), 경영석사(런던 킹스턴 대학교)
- ❖ 2022년 1월에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지명되었으며, 광범위한 투어 운영, 발권, 방문객 서비스, 접근(access), 소매유통(retail), 수상 경력에 빛나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바(bar)와 레스토랑을 책임지고 있음
-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입사 이전에는 시드니 아쿠아리움, 시드니 타워 등에서 20년의 고객경험관리 업무를 담당함



나. 방문 주요 내용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면담 내용 요약)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개요〉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⁶⁾ 설계를 위해 1955년 12월 디자인 공모전이 실시되었고, 총 28개국에서 222개의 계획안이 제출, 영국에서 53개, 미국에서 24개, 독일에서 23개, 덴마크에서 2개가 접수됨
- 본 건물은 16년의 공사 끝에 1973년에 개관하였으며, 전체 프로젝

6) 1973년에 준공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Sydney Opera House)는 호주 시드니 항구의 돌출된 반도 끝의 유려한 해안 경관을 배경으로 세워진 건축물로 2007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됨

트의 운영은 덴마크의 건축가 예른 웃손, 내부 인테리어는 호주 건축가 피터 홀이 디자인 하였음

- 건축물 디자인 시 예른 웃손은 마야 문명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보고 기단 디자인에 적용, 지붕은 물 위에 떠 있는 요트의 돛 모양을 형상화하였다고 밝힘
- 설계만 5년 이상이 걸리고 기하학적인 구조물 형태를 실현하기 위해 공사가 지체되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완공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끝에 계획보다 10년이 지난 시점에 완공. 2023년 50주년을 맞이함
- 오페라 하우스 극장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제작기간만 10년이 걸렸으며, 튜닝은 2년여가 소요됨. 밖으로 보이는 파이프는 100여 개, 뒤편에는 1만여 개의 파이프가 3층 높이에 걸쳐 설치되어 있음
- 2007년 6월 28일 본 건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도의 타지마할,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귀중한 건축물들과 나란히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세계문화유산 중 가장 최근에 세워진 건축물이며 등재 당시 건축가가 생존했던 유일한 유산인 점이 특징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운영 현황〉

- 2023년 현재 연간 200만 명 정도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하고 있으며, 공연은 매년 2천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현재는 세계적인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극장, 녹음실, 음악당, 전시장, 연극단, 도서관 등을 포함 관람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오페라 하우스 입구에서 콘서트 홀까지 하나의 계단도 거치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사도 완성함

다. 질의 응답

- 질문 : (이병도 의원) 호주에 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관점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이하 오페라 하우스)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 (Louise Herron CEO) 오페라 하우스는 개관 50주년에 맞춰 지난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한 것이 있는데, 지하에서 지상 1~6층까지 단 하나의 계단도 거치지 않고 경사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한 것임. 어떻게 보면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함.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조 장치,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또한, 공연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내부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야외 공연장에서 1인당 1호주달러만 받고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 질문 : (박영한 의원) 오페라 하우스는 자체 공연 수입 등을 통해 자생적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등의 보조적 지원이 있는지 궁금하며, 자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Louise Herron CEO) 현재 공연 티켓 판매 수익, 식음료 및 기타 수익으로 오페라 하우스 운영비의 90%를 충당하고 있으나, 건물 유지보수비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서 따로 책정하여 지원을 해 주고 있음. 연방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없으며, 주정부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 정리하면, 전체 운영비의 40%를 공연 티켓 판매 수익이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기부금, 10%는 식음료 판매 수익이 차지하며, 주정부가 1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됨

- 질문 : (박상혁 의원) 루이스 헤론 CEO께서 이곳에서 근무한 지 약

10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 처음 와서 가장 이루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향후 10~20년을 내다보고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함

답변: (Louise Herron CEO) 투자은행 법률가 재직 시 이미 문화단체 관련 업무를 병행하였고 오페라 하우스에 펀드를 주고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 현재 오페라 하우스에 정기 후원하는 22개 기업 중에서 7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음. 그간의 경험이 현재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어 오페라 하우스 CEO로 올 수 있었음.

그리고 처음 부임해서 하고 싶었던 일은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오페라 하우스의 재단장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음. 향후 하고 싶은 것은 물리적 부분은 거의 다 이루었다고 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집중하고 싶음. 특히, 오페라 하우스를 경제적·물리적·문화적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음

- **질문 :** (도문열 위원장) 오페라 하우스 공사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서울시에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약 3,300억 원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답변: (Louise Herron CEO) 50년 전 당시 예상 건축비는 약 700만 호주달러(약 61억 원)였으나 총 1억 호주달러(약 9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었으며, 계획부터 실행까지 약 8년 정도 걸림

- **질문 :** (도문열 위원장) 오페라 하우스 설계와 건축 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유네스코 지정과 관련된 문제였는지?

답변: (Louise Herron CEO) 오페라 하우스는 50년 전에 준공이 되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시기는 2007년이라 건축 당시의 잡음이 세계유산 등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페라 하우스의 디자인이 우수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움직임, 예술가들의 노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건축 총괄 담당자가 크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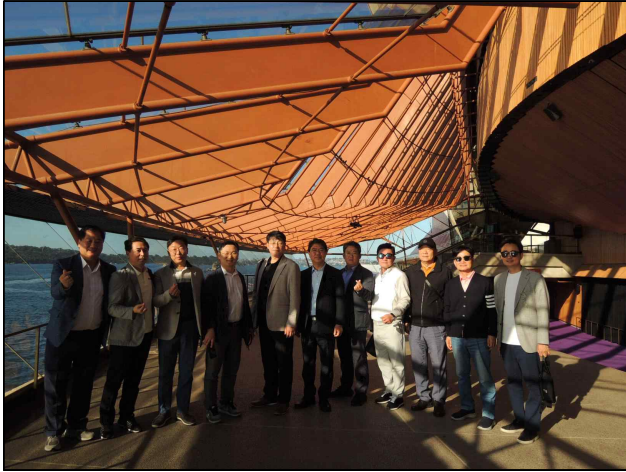
- 질문 : (허 훈 의원) 오페라 하우스 투어를 통해 내부를 둘러보고 왔는데, 50년이나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어 놀랐음. 서울시 역시 건축물 관리를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현재 루이스 헤론 CEO, 제이드 맥켈러 CCO 께서 지난 10여 년 근무하며 정치적 외압이 혹시 있었는지 궁금함

답변 : (Louise Herron CEO)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 (relationship)임. 집단 간의 상호 이해 관계 구축이 관건임

- 질문 : (서상열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 (Louise Herron CEO) 우리는 한국의 영화계의 발전을 보고 큰 영감을 얻었는데, 한국의 영화산업은 지금, 현재 시점을 바라보고 발전시킨 것이 아닌 당시 30~40년 후에 어떤 관중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예측하고 발전시켜 온 것 같음. 오페라 하우스도 1950년대 당시 현재 오페라 하우스가 어떤 관중과 어떤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지 미리 예측하고 상상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도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한 수요를 예측하여 끊임 없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라. 방문 사진 자료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시설 시찰 및 질의응답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기관설명 및 이슈 토론과 질의응답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Louise Herron CEO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기관방문 단체 사진

5.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UNSW)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2. (금)
10:00~11:30
- 방문장소 :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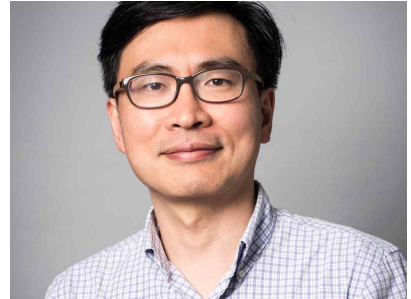


- ※ (주소) Red Centre (H13),
University Mall, UNSW Sydney, Kensington NSW 2052
- 시드니에 위치한 호주의 최상위권 대학이자 세계적인 수준의 명문대학으로, 건축환경대학은 시드니 수변공간 재생과 도시계획에 다수 참여함
- 면 담 자 :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⁷⁾ 건축환경대학 한정훈 교수
- 방문목적
 - 도시계획 공간정보 관련 연구 현황 및 도시계획 선진사례 학습
 - 2023년 주요 시드니 도시계획 및 정책과 추진 방향, 도시 국제 경쟁력 향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 (도시, 교통, 주택, 상업 관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계획 정책, 주택공급, 부동산 세제 등 지원 내용과 관련한 의견청취

7)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에 있는 연구 중심 공립 종합대학교로 1949년 설립됨. 2021년 QS 세계대학순위에서 호수 4위, 세계 44위를 기록

■ 한정훈 교수 약력

- ❖ 뉴사우스웨일스대 건축환경대학 교수
(School of Built Environment, UNSW)
University of Queensland Ph.D(박사)
- ❖ 주요이력
 - 2023~ : 호주국립도시주택연구원(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AHURI) 원장
 - 2011~ : 뉴사우스웨일스대 건축환경대학 교수
 - 2009~2011 : Griffith University 연구교수
 - 2004~2009 : University of Queensland 연구교수



나. 방문 주요 내용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한정훈 교수 세미나 발표 요약)

〈호주 국가 개요〉

- 현재 호주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면적은 7,692,200 km^2 으로 한국 면적의 약 76배이고, 국민소득은 약 65,000 USD임
- 호주는 사막 지역이 대단히 넓으며, 대부분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현재 호주는 고속철도 건설 추진을 기획하고 있으며 국방사업으로 핵 잠수함 6척 건조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현재 기획 중인 고속철도를 완공하고도 남는 예산임
- 대중 무역은 공산제품 수입, 원자재 철강 등을 수출하고 있음

〈호주 부동산세제 현황〉

- 최근 호주는 국가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호주의 주택 보유세는 주택 공시지가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할 수 있음

- 호주의 부동산 취득세는 실거주용·투자용에 상관없이 실거래가의 4~5% 정도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향후 보유세를 늘리고 취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음
- 호주의 양도소득세는 거래 차액의 30%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율을 30%로 고정하고 있으므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나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나 세율이 같음
- 또한, 은행에 돈을 빌려 빚을 갚는 경우, 투자용 부동산 비용에 대해 개인 소득세 공제를 하고 있음. 그리고 호주는 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등의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집값을 올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침
- 현재의 문제점은 단순히 부동산세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세금에 대해 복합적인 혼합(mix)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호주 세수의 대부분은 소득세로 전체의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세가 20%를 차지하고 있음. 부동산세는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해 이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함
- 호주는 2012년부터 부동산 세법 개혁을 위해 20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전체 부동산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하고 이는 전체 인구 9%만이 내고 있어 불합리한 구조이며 불평등한 세금 부과 기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를 한국의 부가가치세 10%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호주도 2000년대 초반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5%를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음

〈호주의 주택공급 제도〉

- 호주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특정 계층은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호주는 인력난이 매우 심한 편임
- 호주는 한화 연 8천만 원 이하를 벌게 되면 대부분의 복지제도를 조금씩 다 누릴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면 복지제도를 사실 상 누릴 수 없으므로 한화 연 8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이유가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2022년 한 해 동안 호주의 집값이 33%가 올랐으며, 현재 시드니의 주택 가격은 중간값이 한화 15억 원임.

호주는 주택의 90%가 단독주택이며, 아파트(공동주택)는 10% 정도에 불과함

- 호주는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산층을 대상으로 인근 민간 시세와 비교하여 20~30%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 특히, 재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어포더블 하우징만 공급하는 것이 아닌 관련 인프라(학교 도서관, 공공 커뮤니티 센터 등)도 전부 지어줘야 하므로 거주 여건이 좋은 편
- 한국 역시 향후 10~20년 후에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책(주택공급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임

〈AI를 활용한 도시계획 연구 현황〉

- 현재 한정훈 교수는 AI⁹⁾를 이용하여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5개 특허를 보유한 상황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상태, 접근성 등을 보고 판단하여 분석하는 기술임. 정확도가

8)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에 도심부 사무 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시작된 주택 정책. 도심부에 사무용 빌딩 개발과 함께 저·중 소득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9)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人工知能)이라고도 불리며,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임

굉장히 높은 편이며 알파고와 같이 계속 사례를 넣어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임

- 또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의 하나는 코로나19로 파산한 회사로 인해 공실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CBRE¹⁰⁾ 부동산 회사가 무상으로 인터넷만 연결해주고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제적 효율이 높은 방향을 AI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

다. 질의 응답

- 질문 : (김영철 의원) 호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땅은 좁고 인구밀도와 집값은 높은 편임. 호주는 땅도 넓고 인구 밀도가 낮는데 정부가 추구하는 도시계획 방향성은 무엇인지?

답변 : (한정훈 교수) 호주는 국토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90% 이상이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땅이 넓으면 인프라 건설 비용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단점이 있기 때문임. 호주는 한국과 달리 신도시라는 개념이 없는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임. 신도시를 만들어도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지방 거주 조건으로 이민자를 받는 이민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임. 이민자가 중소도시에서 몇 년 거주하면 비자를 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음.

땅이 넓다 보니 개인 소유의 농장 하나가 강원도 면적의 절반이 되기도 함. 가축을 방목하는데 울타리가 따로 없으며, 비행기를 타면서 소를 몰고 가축에 GPS 장치를 부착하여 노트북으로 위치 추적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음

- 질문 : (김용일 의원)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4~5%라고 하셨는데, 한국은 3주택 소유자는 12%의 취득세를 내고 있으나 현재는 완화하

10) CBRE(CBRE GROUP INCORPORATED) : 미국 Dallas에 본사를 두고 있는 Fortune 500와 S&P 500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려는 움직임이 있음. 2022년 호주의 부동산 상승률이 33%라고 하였는데, 한국은 주택 가격 상승·하락을 계산 시 서울과 지방을 합하여 내기 때문에 7~8%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특정 지역의 예를 들면 서울시 노원구 등은 40%까지 오른 사례도 확인할 수 있음. 교수님께서 20년 장기 계획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연구를 한다고 하였는데, 부동산 연구는 단기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정훈 교수) 호주는 지역 특성상 서쪽은 노동자 저소득층이, 동쪽의 해안가 쪽은 화이트 칼라에 고소득자가 많이 사는 경향이 있음.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주택 정책을 면밀히 펼치기 보다 인프라, 지하철, 고속도로, 공공시설 등의 확충을 주정부를 중심으로 보급하며 지역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질문: (김용일 의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관여를 안하게 되면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정훈 교수) 부동산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정책은 호주의 모든 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바꿀 수 있음. 주마다 세부적인 지원 방안들은 짧은 주기로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정책들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음. 호주는 전체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당여하게 여기고 있음

질문: (김용일 의원) 전세 세금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8%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다 보는지?

답변: (한정훈 교수) 호주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음. 30년 전 정책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은 현재 30년 전과는 다른 상황임. 하지만, 지금의 정책을 단기간 내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질문 : (박상혁 의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드니는 서울시하고 상

황이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특히 용도지역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함. 상수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도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 (한정훈 교수)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음.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강남구, 서초구, 구로구, 관악구 등의 용도지역 기준이 다 다름. 자치구에서 밀도를 결정하는데 주정부랑 협의가 필요함. 특히, 역세권의 경우 예전에는 허가가 나지 않았던 2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됨

- 질문 : (이용균 부위원장) 한국은 재건축, 재개발 시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공사업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등의 정책을 하고 있음. 호주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 시 기여도와 관련한 세부 규정이 있는지?

답변: (한정훈 교수) 호주 역시 민간사업자 등과 사업을 추진할 때 세부 조건을 제시함. 이에 더하여 각종 인프라(지하철역, 공원, 가로수, 도로 등)를 포함하여 짓도록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규정은 주마다 다 다름. 용적률을 결정할 때, 세부적인 기준을 엄격히 정해놓았으며 건축자재, 건축물 간 거리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켜야 할 행정 절차 및 확인 사항이 많아 우리나라에 비해 건물을 올리는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림. 이것이 주택 공급을 더디게 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음

- 질문 : (도문열 위원장)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 형식의 90%를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공동주택 보급은 왜 늘리지 않는지?

답변: (한정훈 교수) 호주는 정서상 결혼해서 뒷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아이들과 뛰어노는 이상적 그림이 있음.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임

라. 방문 사진 자료



▲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기관설명 및 이슈 토론과 질의응답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기관방문 단체 사진

6. 오클랜드 남부 웰빙위원회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5. (월)
14:00~15:30
- 방문장소 : 오클랜드 남부 웰빙위원회
(South Auckland Social Wellbeing Board)



※ (주소) Building 2, 19 Lambie Drive, Manukau, Auckland 2104

- 2016년 설립된 뉴질랜드 사회복지부 장관 산하의 독립형 위원회로, 초기에는 사회투자위원회(social investment board)로 설립되었으나 새로운 정부(노동당) 이후 사회복지위원회(social wellbeing board)로 명칭이 변경됨
- 오클랜드 남부 웰빙위원회는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예: 경찰)를 담당하는 2개 섹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의장이 존재함
-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 내 사회복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무엇이 작동되지 않는지를 파악하여 실행하는 프로토타입 중심의 기관임
- 면 담 자 : Ishani Gupta 매니저 외
- 방문목적
 - 세계 최초로 웰빙 예산을 도입한 뉴질랜드 사례 청취, 실행기관 관점에서의 다양한 관점 의견 교환
 -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의 정의와 예산 수립 및 실행 기준
 - 계획 수립 시 약자의 정의 및 구체적 예산 사용 항목, 웰빙 예산의 성과와 한계점 논의

■ Ishani Gupta 매니저 약력

- ❖ 現 오uckland남부웰빙위원회(South Auckland Social Wellbeing Board) 프로그램 매니저
- ❖ 前 Waitematā District Health Board ‘어린이 청소년 보건’ 프로젝트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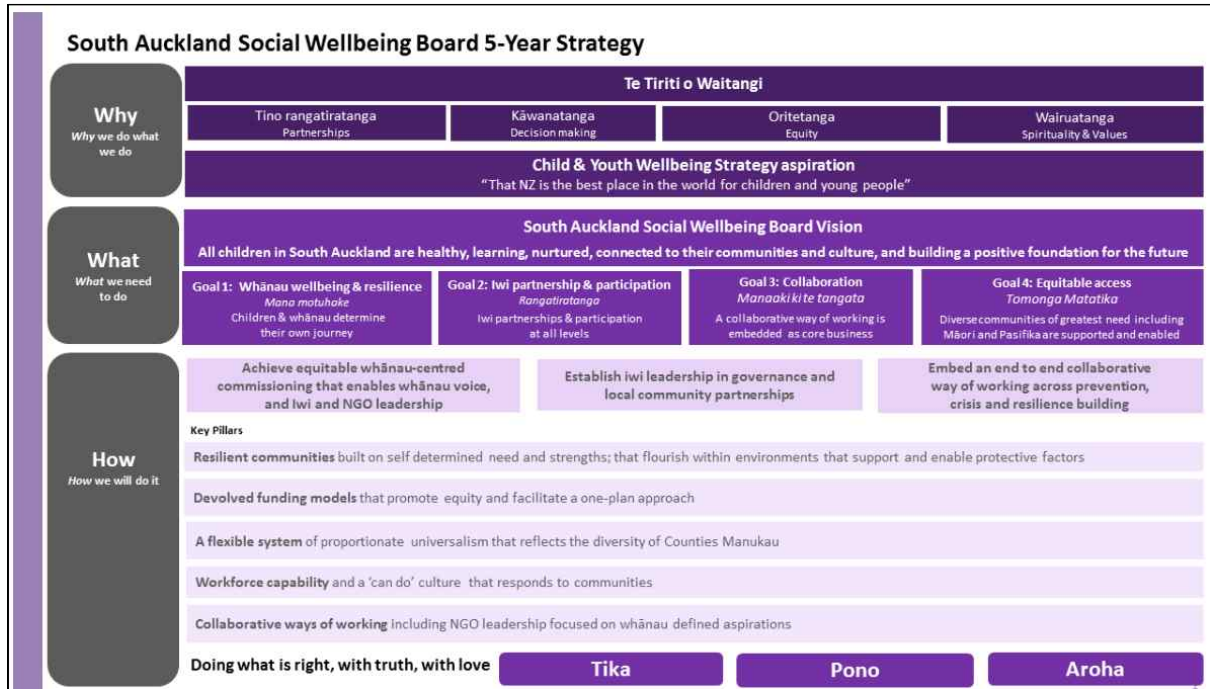
나. 방문 주요내용 (Ishani Gupta 매니저 발표 요약)

〈오uckland남부웰빙위원회 사업 개요〉

- 오uckland남부웰빙위원회는 2016년 13개의 중앙정부 기관과 오uckland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업무 범위는 오uckland 남부지역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
- 이곳에서는 0~5세의 영유아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이 시기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특히 오uckland 남부지역의 아이들은 주거, 교육, 문화적 요소에 의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
-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특징적인 것은 로컬(Local)의 에이전시(Agency)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가정의 문제점 발굴이나 해결 시 기관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대상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음
- 마을의 진정한 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힘, 회복, 책임의 3 요소가 통합되어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유도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uckland남부웰빙위원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오uckland남부웰빙위원회는 오uckland 남부지역만 관할하고 있으며, 서부지역 및 북부지역과는 협업하고 있지 않음. 이는 지역마다 원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

-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 내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문제점과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음



▲ 오uckland남부웰빙위원회 5개년 전략 로드맵

다. 질의 응답

- 질문 : (임만균 의원) 오uckland남부웰빙위원회와 같은 지역 중심 이니셔티브(Place Based Initiative, 이하 PBI) 기관이 타 지역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적으로 교류가 있는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함

답변: (Ishani Gupta 매니저) 오uckland남부웰빙위원회는 오uckland 남부지역만 관리를 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웰빙위원회는 그쪽 지역만 관리를 하고 있음. 즉, 서로에 대한 교류는 많지 않으며 이는 지역 사회마다 안고 있는 문제점이 다 다르기 때문임

질문: (황철규 부위원장) 오uckland남부웰빙위원회를 포함한 PBI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정부에서 제공하는 PBI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지역의 PBI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도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각 PBI에게 상당 부분 자율권을 주고 있음

- **질문 :** (이병도 의원)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가 생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정부 교체 등이 위원회 설립 계기가 된 것인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2016년부터 정부는 6가지 정책 (주택, 건강, 보건, 교육, 문화, 안전)에 중점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과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음.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뉴질랜드 사회복지부 장관 산하의 독립형 위원회이며, 2016년 설립 초기에는 사회투자위원회로 설립되었으나 2020년 노동당 집권 이후 웰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질문 : (이병도 의원) 이러한 성격의 사업들은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성과 지표 수립 및 측정이 어려운데 어떠한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이 업무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기 어려우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5~10년의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음.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가 담당하는 사업은 프로토타입의 성격이라 보면 됨.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정부-지역사회-가족 간의 문제점을 찾고 차이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와 같은 PBI 평가를 위한 다음의 주요 평가 질문이 있음.

- ①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PBI 모델이 얼마나 잘 구현되었는가?

② 공유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작업 방식을 만드는 데 PBI 모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③ PBI 모델은 사회 부문 시스템 변화에 얼마나 잘 기여하고 있으며, 복잡한 문제를 가진 가정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질문 : (박상혁 의원) 서울시에는 약자 동행이라는 사업이 있으며 운영이 되고 있음. 저희가 좀 더 이해도를 높이고 적용할 부분을 찾고 싶은데, 성공·실패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구체적인 성공·실패사례를 들기는 어려우나, 정부의 정책을 우리 지역의 커뮤니티에 맞게 변화를 준 것이 우리 위원회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음

- 질문 : (박상혁 의원) 위원회에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례를 하나 설명해줄 수 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복잡한 문제를 보유한 가정(한부모, 저학력·저소득, 가정폭력, 이민자, 마오리가정 등)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집중관리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음. 지역 내 30명의 임산부(수입이 적고,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를 선정하여, 임산부에게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각각 1명씩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음.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해당 가정 또는 임산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보고하면, 웰빙위원회에 관여되어 있는 담당 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을 파견함

- 질문 : (김용일 의원)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의 규모와 운영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현재 이 사무실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파견한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 전략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웰빙위원회는 지역의 에이전시에서 협업하며, 에이전시를 포함한 전체 인력은 50여 명 규모임

- 질문 : (서상열 의원) 정부 조직 내 기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지 궁금하며, 예산상 운영비와 사업비, 인건비 등 예산 확보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뉴질랜드 사회복지부 산하의 독립 위원회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모두 관련 중앙정부, 지방정부 소속이며, 위원회 예산은 사회복지부에서 직접 지원함. 연간 운영 예산 외에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관련 기관으로부터도 예산을 별도로 배정받아서 집행하게 됨.

- 질문 : (박영한 의원) 예산수립 기준 및 집행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250만 뉴질랜드달러¹¹⁾를 운영비로 지원 받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 집행 기준을 따르고 있음

- 질문 : (서상열 의원) 정부의 정책을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에서 자체 변형을 시켜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결정 정책을 어떤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여기 소속 직원이 정부 직원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행 방식을 부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지역의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질문 : (이용균 부위원장) 오클랜드 남부지역¹²⁾은 가족 문제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본 위원회를 설립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이 지역의 주요 현안이 맞으며, 위원회 설립 시 가정 문제 해결을 위원회의 가장

11) 2023년 5월 기준 22억 원 정도

12) 오클랜드 남부지역은 오클랜드 시에서도 저소득층 주거지에 속하며, 이민자, 마오리족 등의 거주비율이 높고 가정폭력이 지역 내 사회문제로 대두됨

중점적인 역할로 상정하였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주택 보유 비율도 적고 정규 교육 수혜자도 적으며, 경제활동 인구도 적은 편임. 건강 보전에 대한 지원 수준도 낮아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요하고 있으므로, 지역 가정의 빈곤 해결을 위해 위원회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질문 : (도문열 위원장) 위원회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가족에 전달되고 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현재 위원회에서는 7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모두 0~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50여 명의 지역 에이전시가 직접 가족과 연락하여 문제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함. 다른 지역의 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질문 : (김영철 의원) 6세 이후의 아이들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위원회가 0~5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은, 이 시기 아동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임. 이 시기를 놓치면 같은 문제라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소요됨. 위원회는 13세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가정폭력 등 기타 문제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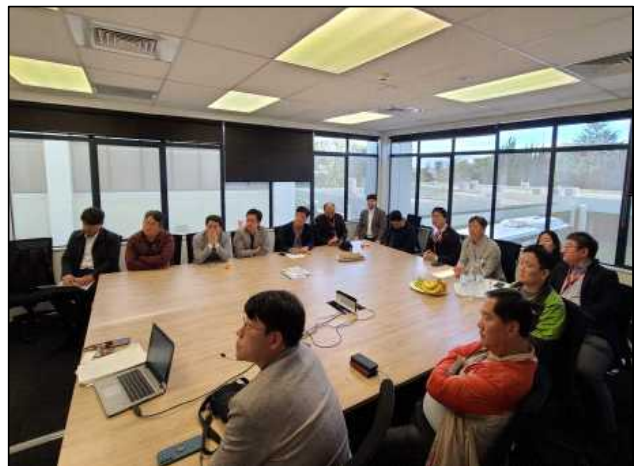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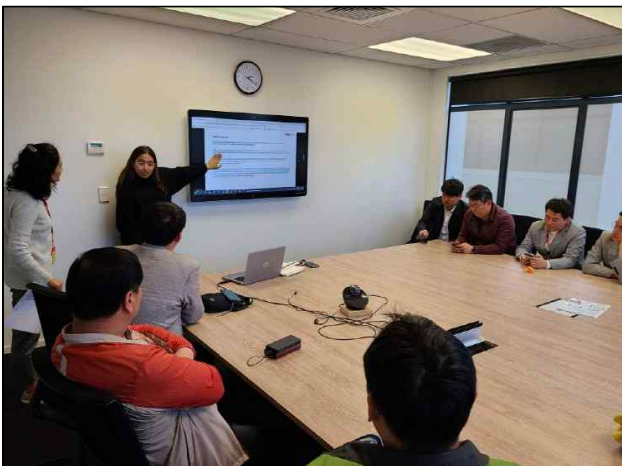
- 질문 : (이병도 의원) 위원회의 주무부처는 어디이고, 13개의 연계된 정부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뉴질랜드 사회복지부가 주무부처이고, 경찰, 주택, 사회복지, 교육부, 태평양 관리, 마우리족, 법무부, 수집부, 지역정부 등이 관여하고 있음. 에이전시와 마우리족이 같이 협업으로 관리 커뮤니티로서 일을 하고 있음.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에서는 특히 마우리족 커뮤니티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련 사업 실행시 오클랜드 시청과도 협업을 함. 위원회는 마우리와 시청을 연계하는 중간 매니저 역할도 담당함

- 질문 : (서준오 의원) 현재 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앙 정부에서 파견하여 순환보직 형태로 근무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일을 하도록 정부가 별도 채용한 인력인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위원회에는 사회복지부, 경찰, 주택, 사회복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파견한 인력과 별도 채용한 인력이 함께 일하고 있음.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는 보건복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으며, 별도 채용된 인력의 부서 이동은 없음

라. 방문 사진 자료



▲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 기관설명 및 이슈 토론과 질의응답



▲ 오uckland남부웰빙위원회 Ishani Gupta 매니저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외공무 시찰단의
오uckland남부웰빙위원회 기관방문 단체 사진

1. 달링 하버 (Darling Harb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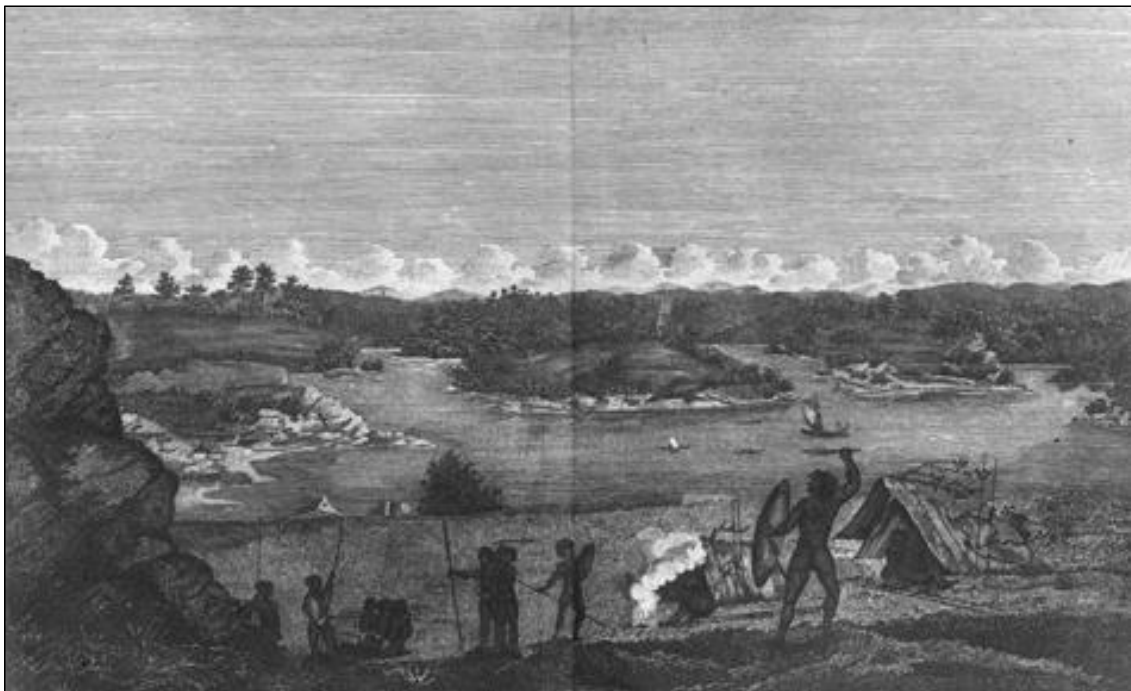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2. (금) 14:00~16:00
- 방문장소 : 달링하버 (Darling Harbour Sydney NSW 2000)

나. 방문 주요 내용¹³⁾

(1) 방문목적

- 지역 변화에 따라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재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했는지 확인
- 서울시의 구도심·노후 쇠퇴지역에 대한 시사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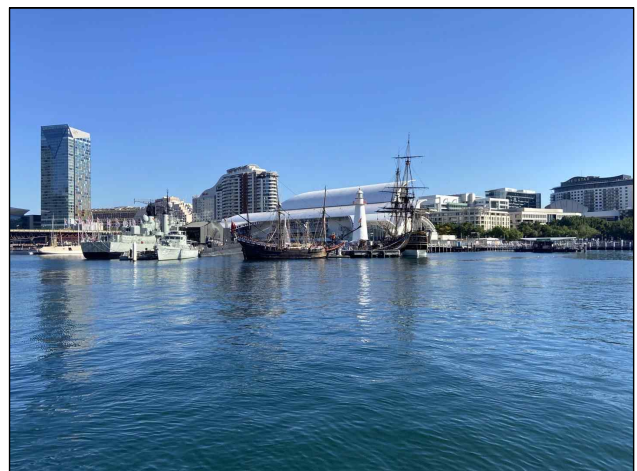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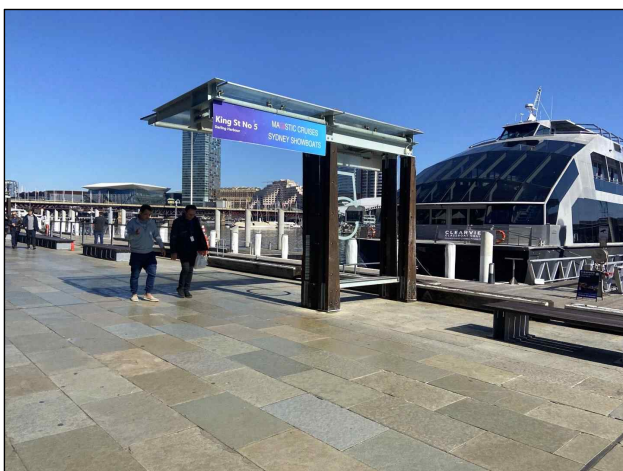
코클베이(Cockle Bay)의 초기 모습. [John Eyre, 1813년]
출처: <https://www.darlingharbour.com/> 달링하버 공식 홈페이지

13) <https://www.darlingharbour.com/> 달링하버 공식 홈페이지 내 역사 내용 일부 발췌 가공

(2) 지역 발전 역사 및 현황

- 달링하버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서쪽 외곽에 위치한 항구임
-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로 꼽히는 호주 시드니는 1788년 영국 정착민이 도착하면서 도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 시드니는 바다가 육지 깊숙이까지 파고들어 자연적으로 항구조건을 갖추어 방파제나 인공시설이 없이도 항구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정착민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터전이기도 하였다. 초기 정착민들은 현 달링하버를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긴 만이라는 뜻으로 롱 코버라고 불렀으며 이후 코클베이로 개명되었다. 1800년대 초에 들면서 현재의 달링하버 서쪽에 해당되는 피어몬트 지역이 피크닉 장소로 인기가 있었으며 달링하버 동쪽에 해당되는 코클베이에 최초의 정박시설이 이 시기에 설치되었다. 이 정박시설은 파라마타와 북부해안의 목재를 시내 시장으로 이동하는 하역장으로 활용되었다. 1826년 NSW주 9대 총독인 랄프 달링경의 이름을 따서 달링하버로 정식 명명되었으며 차츰 호주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 19세기에는 산업 혁명 기술,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함
 - 1890년대 소규모 산업에서 창고 및 양모 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1900년대는 이곳에 수십 개의 부두가 건설됨
- 1930년 대공황을 기점으로 산업 역사 종결 위기에 처함
 -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무렵에는 항구 및 주변 산업지역이 크게 쇠퇴하게 되며, 달링하버의 번성했던 산업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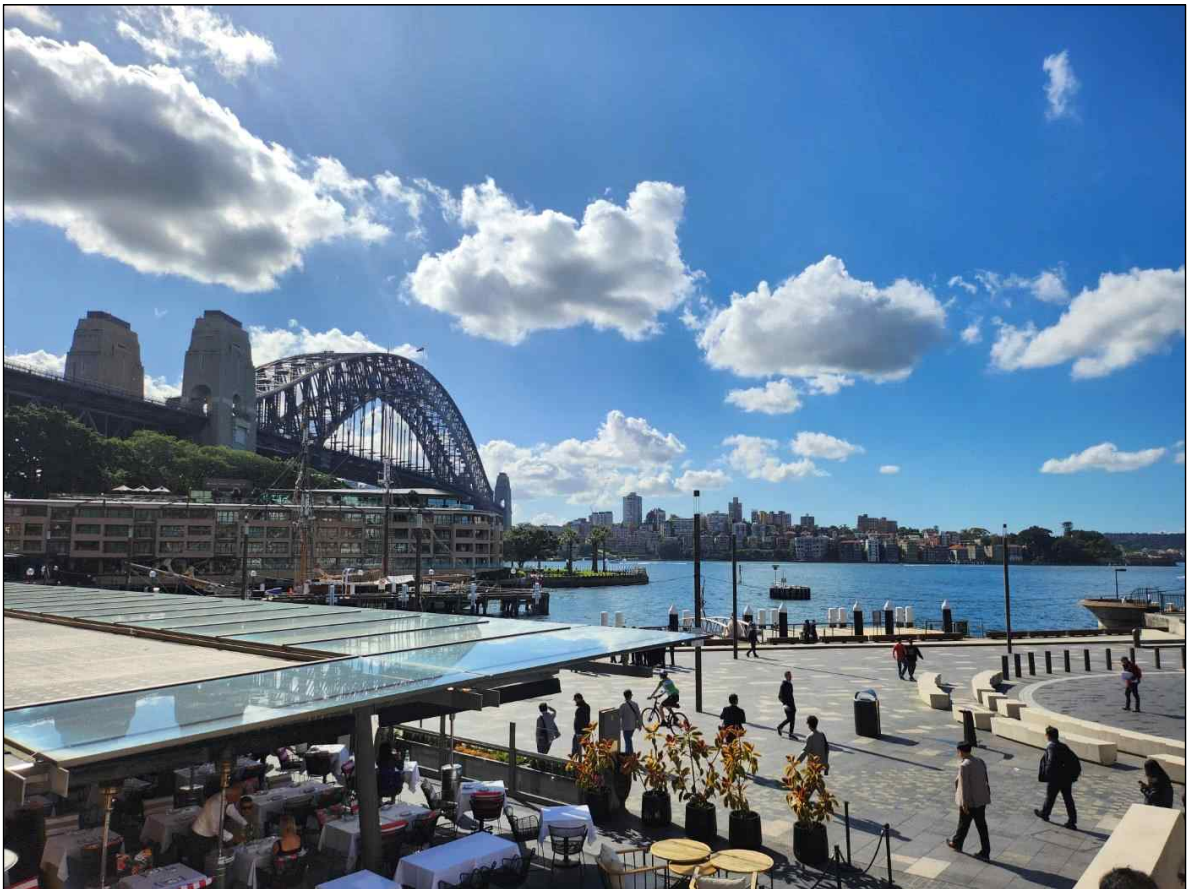
- 정부 주도로 쇠퇴한 구도심의 탈바꿈 유도, 시드니를 대표하는 도시 재생 사례로 재탄생함
- 1984년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리는 달링하버 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개발하여 반환하겠다는 발표하였으며, 달링하버 연안으로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방치되고 노후한 산업용지 54ha를 대상지로 사업계획을 수립함
- 1998년 10월 200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달링하버를 공식 개장하며 시드니의 새로운 명소가 됨
- 특히, 수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환경 보전을 위해 인접 건축물에 대한 높이 규제를 실시, 성공적인 워터프론트(Waterfront)경관 연출
- 박물관, 상점, 레스토랑, 호텔 등 다양한 여가시설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으며, 현재는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음
- 다양한 교통수단 확보로 접근성 향상 도모. 특히 육상 교통 수단인 모노레일과 버스 등을 물론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수상 택시 등을 도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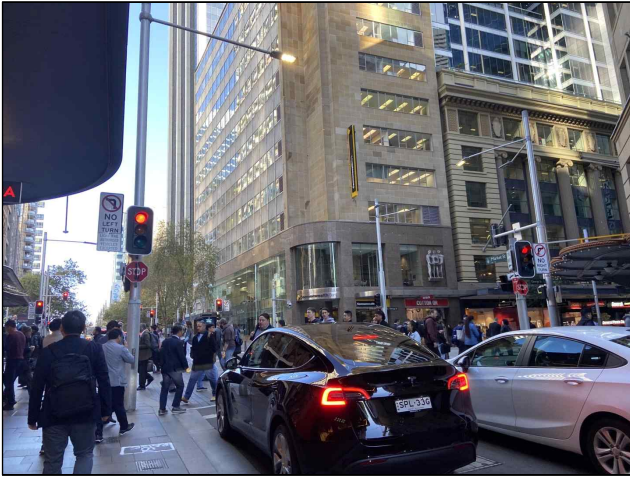
▲ 달링하버(Darling Harbour)의 킹 스트리트(King Street) 해안 부둣가 전경

(3) 정책적 시사점

- 과거 번성했던 산업 및 무역이 쇠퇴함에 따라 계획적인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본래 기능과는 차별화되고 지역의 수요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역 기능 변화 유도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
- 도시재생 대상지의 물리적 변화는 물론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를 기획하여 변화롭고 다채로운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함
- 수변공간이라는 특징을 살린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개발 및 이용 확산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함
- 또한, 인근의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는 달링하버와 함께 시드니 최고의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으며, 새해 기념행사 불꽃놀이와 함께 직접 다리에 보행자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와 인근 수변 관광자원 전경



▲ 달링하버(Darling Harbour)의 마켓(Market Street) 중심지 전경

2. 로얄 보타닉 가든 (Royal Botanic Garden)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0. (수) 13:30~15:30
- 방문장소 : 로얄 보타닉 가든 (Mrs Macquaries Rd, Sydney NSW 2000)

나. 방문 주요 내용¹⁴⁾

(1) 방문목적

- 녹지공간 외에 다양한 기능의 결합을 통해 지루하고 방치될 수 있는 도심 녹지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서울 도심 내 조성된 다양한 녹지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 사례를 정리하고 적용 방안에 대해 고찰 필요

(2) 지역 발전 역사 및 현황

- 로얄 보타닉 가든¹⁵⁾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 서쪽 팜 코브 (Farm Cove)지역에 위치
- 최초 호주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워레인¹⁶⁾ 지역을 농장으로 개간
 - 1788년 아서 필립 선장이 이끄는 11척의 영국 선박이 보타니 만 (Botany Bay)에 도착,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며, 워레인 지역으로 이동
 - 당시 선박에는 영국, 아프리카, 미국, 프랑스, 죄수 775명을 포함한 약 1,500여 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전해짐
 - 이 지역은 첫 번째 식민지 농장으로서 개간되며 식량 공급을 시작하려

14) <https://www.rbgsyd.nsw.gov.au/> 로얄 보타닉 가든 공식 홈페이지 내 역사 내용 일부 발췌 가공

15) 로얄 보타닉 가든의 정식 명칭은 시드니 왕립 식물원(Royal Botanic Garden, Sydney)

16) 당시 워레인(Warrane) 지역은 현재의 시드니 만(Sydney Cove)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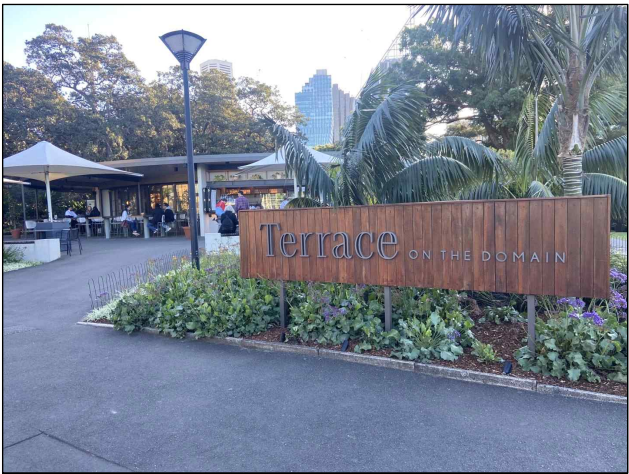
했으나, 당시 유럽에서 가져온 커피, 밀, 보리, 옥수수 등은 기후와 땅이 맞지 않아 실패로 끝남

- 맥쿼리¹⁷⁾ 주지사에 의해 최초 식물원으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함
 - 농작물 재배가 실패로 끝나고 당시 5대 총독이었던 맥쿼리 주지사는 1810년경 용도를 변경, 최초 식물원으로서 형태가 만들어짐
 - 군인이자 정원사였던 찰스 프레이저(Charles Fraser)가 1817년 식물학자로 임명되고, 1821년 식물원의 초대 감독관이 되며 본격적으로 식물원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
- 로얄 보타닉 가든에서 남반구 최초의 세계 박람회를 개최함
 - 1879년 세계 박람회 전시를 위해 보타닉 가든 부지 내 지어진 가든 팰리스(Garden Palace)는 국가의 과학, 경제, 문화적 풍요로움을 과시하고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
- 도심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으로 이용 범위를 확장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 1960년 식물원의 연구시설이 호주 내 식물학 선두 시설로 자리매김
 - 1988년 호주 200주년 기념행사 개최
 - 2016년 시드니 왕립 식물원의 설립 200주년 기념행사 개최

(3) 정책적 시사점

-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녹지공간을 식물 연구시설 조성, 박람회 개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여 활용도를 높인 정책 사례에 해당함
- 도심 녹지공간에 역사성과 장소성을 부여하여 대규모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녹지공간의 상시 개방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능함

17) 제5대 총독, 라클란 맥쿼리(Lachlan Macquarie)



▲ 로얄 보타닉 가든(Royal Botanic Garden, Sydney) 전경

3. 더 록스 마켓 (The Rocks Market)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1. (목) 13:00~15:00
- 방문장소 : 더 록스 마켓 (Argyle & George St The Rocks, Sydney)

나. 방문 주요 내용¹⁸⁾

(1) 방문목적

- 과거 번성했던 쇠퇴 주거지의 재개발 정책과 기능 확장 유도 내용 확인 및 유지관리 방안 점검
- 마을 내 도보 체험 코스의 관광 상품 개발 및 관련 상업 시설 확인

(2) 지역 발전 역사 및 현황

- 더 록스 마켓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 코브(Sydney Cove)와 서큘러 키(Circular Quay)의 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함
- 시드니 최초의 식민지 정착민들이 주거지를 형성한 곳으로, 호주 초기 이민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임
 - 바위가 많은 경사면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어 더 록스(The Rocks)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됨
 - 19세기 중반까지 이곳은 오두막집, 호텔, 매춘 업소 및 창고가 늘어선 구불구불한 거리와 쥐가 많은 동네였으며, 선원과 매춘부, 노동자 가족들이 모여 살았다고 전해짐
- 흑사병 유행을 계기로 마을이 철거되며 이미지 전환기를 맞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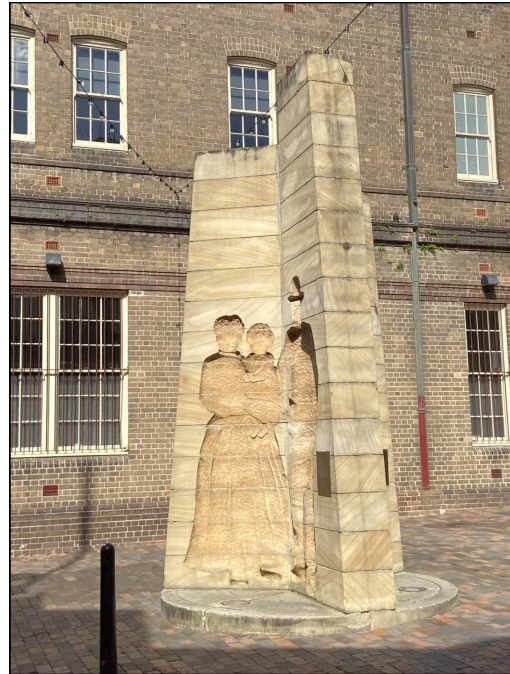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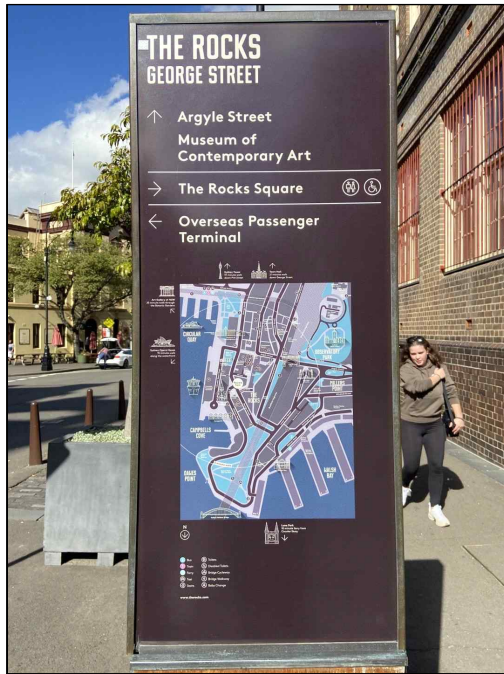
18) <http://www.visitsydneyaustralia.com.au/>, <https://kr.sydney.com/> 홈페이지 내 내용 발췌 가공

- 1900년대 흑사병¹⁹⁾의 유행으로 빈민촌은 철거되며 악명 높았던 뒷골목 구석진 공간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후 새로운 길과 건물들이 들어서며 넓고 노후하며 위험했던 이미지를 탈피하게 됨
- 20세기 중반 경제 호황기를 맞아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 과거의 특징과 매력을 보전한 재개발이 추진됨
- 1960년대 호황기를 맞아 더 록스 지역이 재개발 기회를 맞이하여 이곳의 특징과 매력을 살려 재개발 계획이 수립됨
- 현재 성공적인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현재는 관광 명소로 급부상함
- 자갈이 깔린 골목길과 카페,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술집 등이 존재하며 연중 이벤트 개최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명소로 발돋움
- 이곳에는 현재 호주 현대 미술관, 아가일 갤러리, 더 록스 디스커버리 박물관 등의 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팝업 프로젝트의 많은 공예가와 시인, 장인 또한 활동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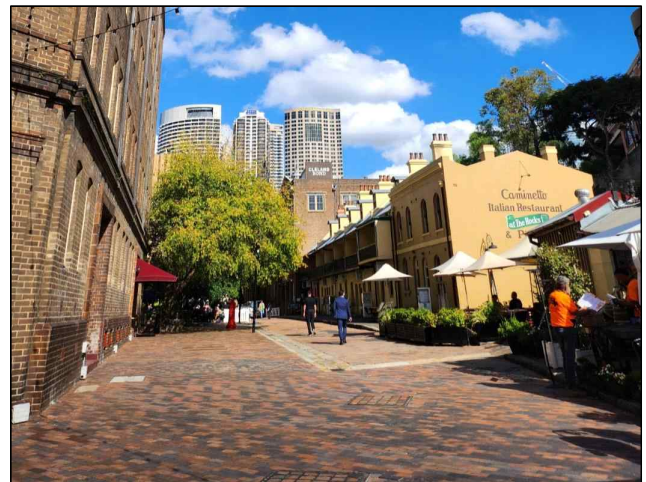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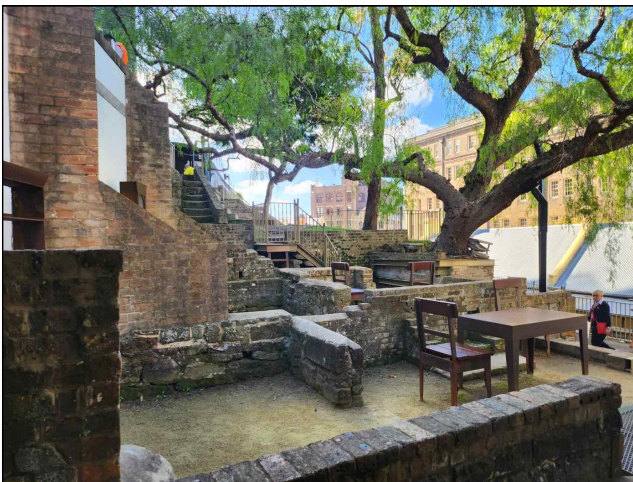
(3) 정책적 시사점

- 우범지대로 인식되던 주거지의 특징과 매력을 살린 관광 상품화 개발은 물론, 다양한 상업 시설 및 이벤트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탈바꿈한 정책 사례에 해당
- 역사도심 재생과 관광명소화와 더불어 ‘더 록스 워킹 투어 (The Rocks Walking Tours)’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시사점 주고 있음
- ※ 본 투어는 ‘휠체어, 장애인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는 코스’로도 알려져 있어 실제 몸이 불편한 관광객도 많이 참여 하는 것으로 확인

19) 흑사병(Bubonic plague), 페스트라고도 불렸으며 강력한 전염성을 가졌으며 과거 유럽에 창궐했던 전염병으로 악명이 높음



▲ 더 록스 마켓 안내문(왼쪽)
& 최초 정착촌 형성 기념 대형 기념비(First Impression)(오른쪽)



▲ 더 록스 역사지구 및 상점가 모습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현지 시찰 모습

4. 바이덕트 하버 & 윈야드 쿼터 (Viaduct Harbour & Wynyard Quarter)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5. (월) 16:00~17:00
- 방문장소 : 바이덕트 하브 & 윈야드 쿼터 (Viaduct Harbour & Wynyard Quarter Queen Street, Auckland)

나. 방문 주요 내용²⁰⁾

(1) 방문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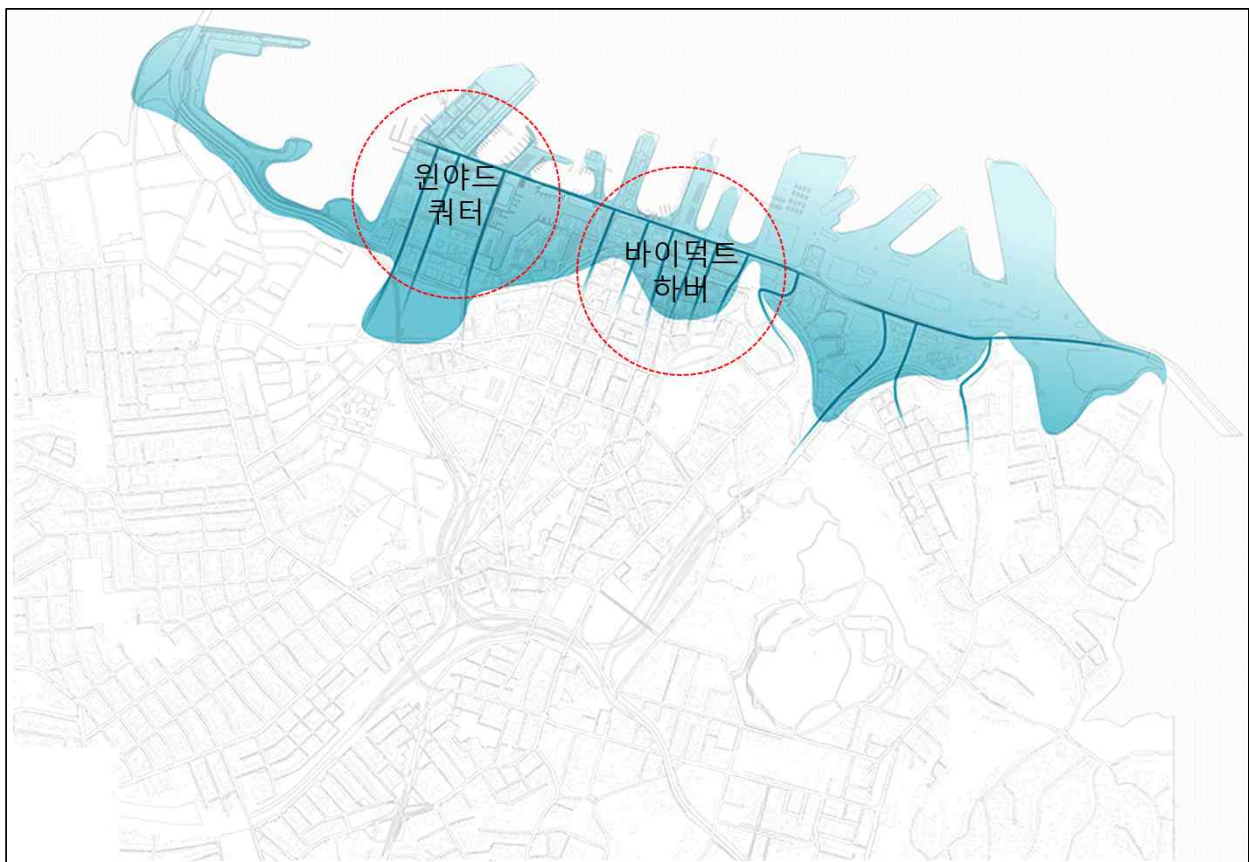
- 과거 선착장, 창고 및 석유 저장 시설과 같은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장기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상업+주거+여가의 복합 기능을 도입한 사례 확인

(2) 지역 발전 역사 및 현황

- 현재 윈야드 쿼터(Wynyard Quarter)로 알려진 서부 매립지역은 오클랜드 항만국의 전신인 오클랜드 항만 위원회(Auckland Harbour Board)에 의해 점진적으로 건설되었으며, 1930년에 매립지로서 건설이 완료됨
- 초창기 이곳은 목재 무역업을 위주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석유화학 저장고로 사용되기 시작함
- 이후 지역의 연료 공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연료 저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됨

20) <https://www.wynyard-quarter.co.nz/about-wynyard-quarter/> 윈야드 쿼터 소개 홈페이지 내 역사 내용 일부 발췌 가공

- 2005년에 오클랜드 항구는 30여 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서부 개발의 초석을 마련. 2007년에는 윈야드 쿼터의 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Sea+City Projects 설립
- 2011년 도심 속 공원을 포함한 수변 공간을 활용한 워터프론트 (water front) 개발 등 공공공간 마련과 함께 주거 및 업무 지역 등 복합시설을 개발하여 수변공간 자원을 활용한 문화 공간을 조성함
- 이곳은 주요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며 지역 이미지를 발전시켜 왔으며 2015년 이후에는 지역 개발업자 주도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2025년에 완료될 예정임
- 또한, '시티 센터 마스터 플랜 2020'으로 동부의 바이덕트 하버 (Viaduct Harbour)와 연계된 장기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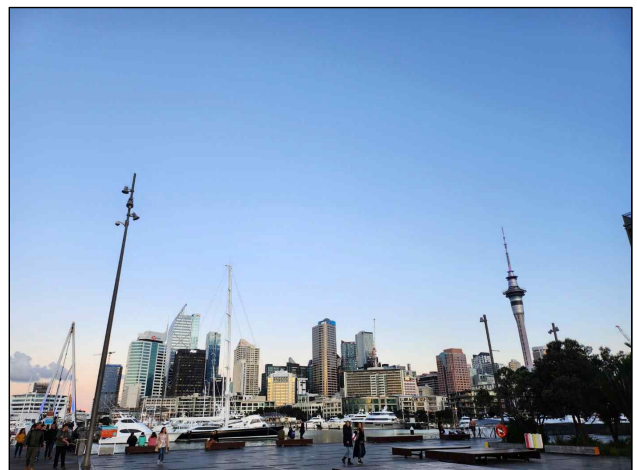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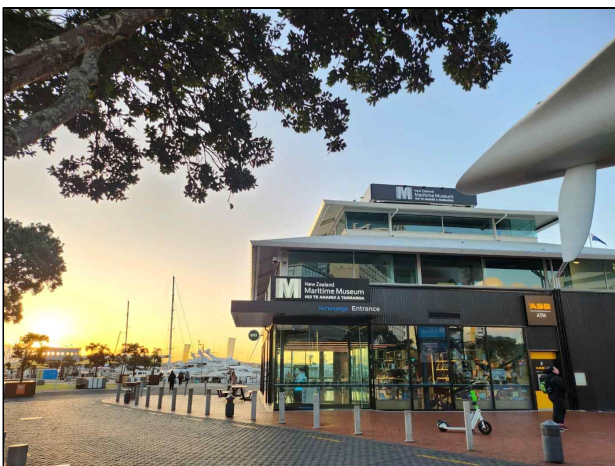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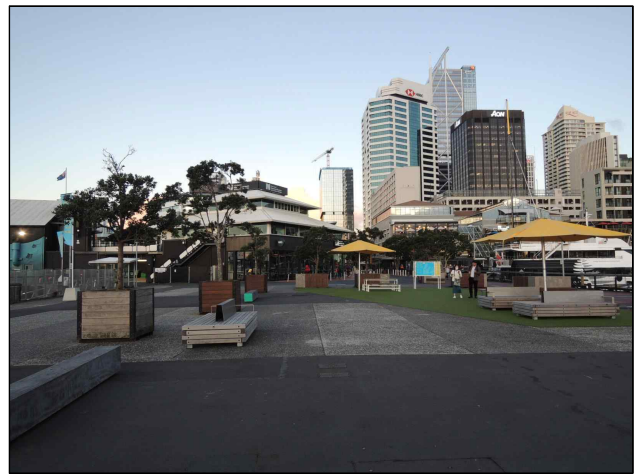


▲ 시티 센터 마스터플랜 2020(City Centre Masterplan 2020)의 워터프론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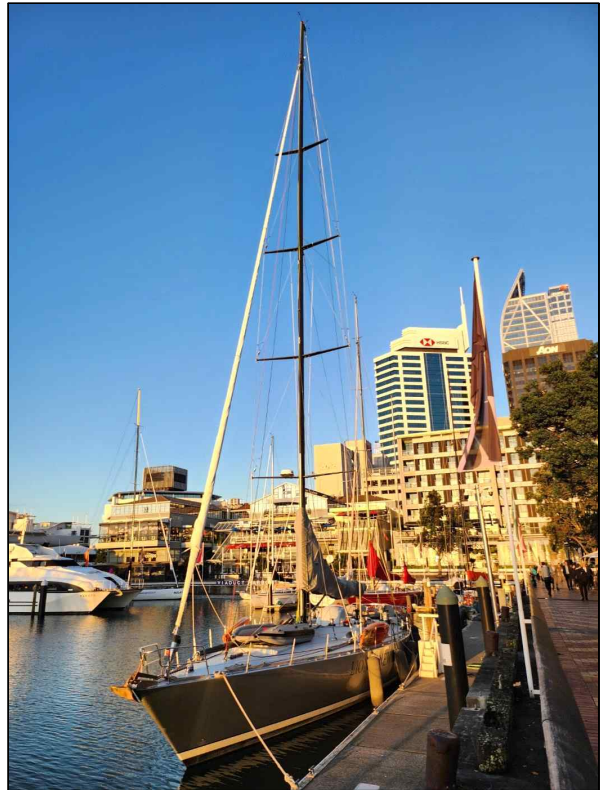
출처 : <https://www.aucklandcouncil.govt.nz/transformational-moves/transformational-move-8-harbour-edge-stitch/>

(3) 정책적 시사점

- 과거 노후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오클랜드시와 오클랜드 지역협의회가 공동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 지역 혁신과 공간 활용에 대한 초석을 마련한 사례
- 30년 이상 장기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수립 및 실행으로 점진적 용도 전환 및 기능 복합화를 실현함
- 인근 지역과의 복합 연계 워터프론트(water front) 개발로 지역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윈야드 쿼터(Wynyard Quarter) 안내문 및 상업 시설 전경



▲ 바이덕트 하버(Viaduct Harbour) 안내문 및 주변 공간 전경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현지 시찰 모습

5. 오클랜드 홉슨빌 포인트 (Auckland Hobsonville Point)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5. (월) 17:00~18:00
- 방문장소 : 오클랜드 홉슨빌 포인트 (Launch Road, Bomb Point Drive, Hobsonville, Auckland 0618)

나. 방문 주요 내용²¹⁾

(1) 방문목적

- 과거 공군 기지였던 부지를 활용하여 오클랜드 북서부 지역의 새로운 거주지역 조성에 대한 사례 확인

(2) 지역 발전 역사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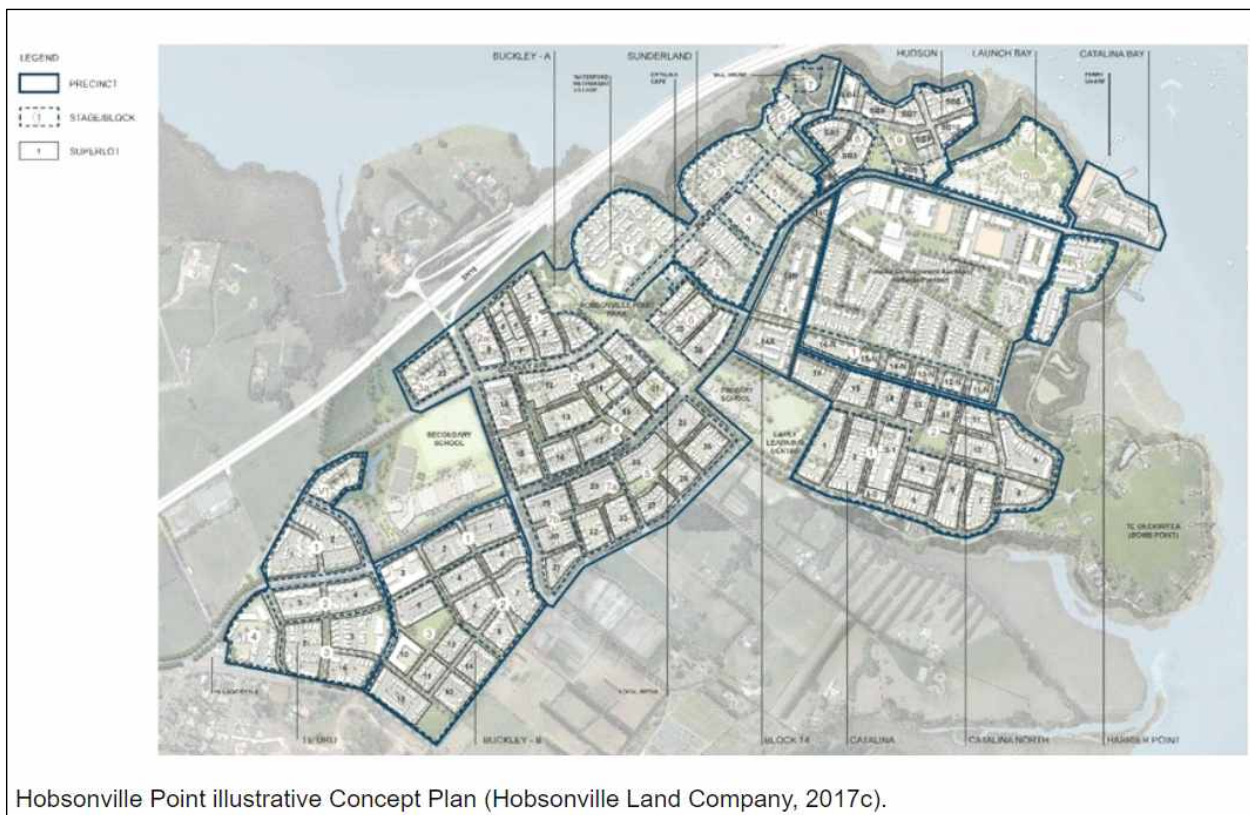
- 카탈리나 베이(Catalina Bay)의 홉슨빌 포인트는 지역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이전의 공군 보호구역이었던 카탈리나 수상 비행기에서 이름이 유래됨
- 이곳의 개발은 원래 건물 중 일부를 용도변경하거나 복원, 활성화 하는 방식으로 역사적인 요소를 접목하여 현대적 주거지를 조성하며 독특한 풍경을 만들 수 있었음
- 이곳은 1.8ha 규모의 해변 마을로 개발되고 있으며, 소매,接客시설, 상업 및 주거 기능의 복합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이곳은 오클랜드 중심지(CBD²²⁾)에서 11km떨어져 있으며, 페리, 버스, 고속도로와도 연결되어 다양한 수단으로의 접근성 또한 우수함

21) <https://www.beehive.govt.nz/sites/default/files/1.Fact-sheet-Hobsonville-Point.pdf>,
<https://www.catalinabay.co.nz/about> 오클랜드 홉슨빌 포인트 관련 내용 일부 발췌 가공

22) CBD : Central Business District

(3)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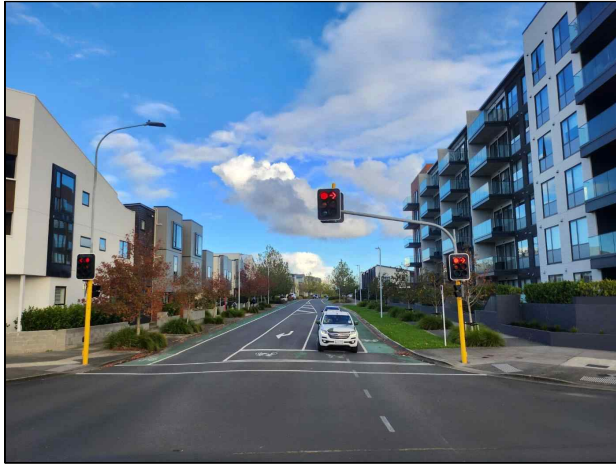
- 이곳 홈슨빌은 뉴질랜드 정부의 어포더블 하우징²³⁾(Affordable housing) 정책 자원에서 만들어진 신도시이며, 과거 공군 기지였던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지역임
- 이 지역은 인근 지역에서 거래되는 주택 가격과 비교하여 최대 20%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청년, 신혼부부와 같이 경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평가됨



▲ 홈슨빌 포인트 계획(Hobsonville Point Concept Plan)

출처 :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Hobsonville-Point-illustrative-Concept-Plan-Hobsonville-Land-Company-2017c_fig3_336709582

23)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도심부 사무 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저·중 소득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방식



▲ 홉슨빌 포인트(Hobsonville Point) 개발지구



▲ 홉슨빌 포인트(Hobsonville Point) 인포메이션 센터 및 카탈리나 베이(Catalina Bay) 전경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현지 시찰 모습

6. 가버먼트 가든스 (Government Gardens)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4. (일) 17:00~18:00
- 방문장소 : 가버먼트 가든스 (Oruawhata Drive, Rotorua 3010)

나. 방문 주요 내용²⁴⁾

(1) 방문목적

- 과거 식민지 시대의 관청 건물을 개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및 관광 시설로 활용한 사례 확인

(2) 지역 발전 역사 및 현황

- 1800년대 후반에 현지 부족이 왕실에 기증한 이 땅은 공공기관으로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식물을 포함 온천지대에 속한 위치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
- 뉴질랜드 정부는 1908년 이 부지에 큰 목욕탕을 만들었으며, 뉴질랜드 정부가 관광 산업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으로 알려져 있음
- 블루 배스(Blue bath)는 뉴질랜드 내에서도 유명한 건물로, 지열 온천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931년에 오픈함
- 정원 부지 내에는 로토루아 박물관이 있어 토착 부족인 마우리족의 문화에 관한 다양한 전시회, 갤러리 및 영화 체험 등이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 과거 관공서 건물과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 및 지역 문화시설로서 개조한 사례로, 쇠퇴 도심의 공공시설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함

24) <https://www.heritage.org.nz/list-details/7015/Rotorua%20Government%20Gardens%20Historic%20Area>
가버먼트 가든스 관련 내용 일부 발췌 가공



▲ 정부 정원 (Government Gardens) 현지 답사 사진

[붙임자료.1]

라이드 시의회(City of Ryde) 자료

Mayor's Message



With Macquarie Park on track to become one of the largest commercial precincts in Australia by 2030, we are embarking on our most ambitious journey to date as City of Ryde transforms into a global hub for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City of Ryde is already home to a diverse and talented workforce, world-class tertiary and vocational education providers and research centres, and a thriving cultural and recreational scene. The combination of high-quality digital infrastructure, thought leadership and collaboration between business, academia and government enables us to constantly innovate for the future.

Investing in the advanced technology sector has the potential to transform our community in a myriad of ways. It creates new job opportunities for our wider community, especially those with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backgrounds. It also spurs innovation and creativity, attracting the best and brightest minds to our City.

Attracting more investment into the technology sector is crucial for the growth of Macquarie Park and the wider City of Ryde. As Mayor of the City of Ryde, I am committed to working with our community, collaborators and local and international partners to secure this investment and remain competitive and at the forefront of innovation.

Sarkis Yedellian

Cllr Sarkis Yedellian OAM
City of Ryde Mayor

Chief Executive Officer Message



Macquarie Park is Australia's original innovation district. With its strategic location, diverse economy and population, skilled workforce, connectivity and amenities, it stands apart as a place to do business, and is an ideal choice for pioneering technology-driven companies to set up shop.

We have a clear path for how to support those who are eager to partner with us to help us grow further and prosper well into the future.

We are committed to reducing the costs and risks associated with doing business in our City and through our business concierge service we will provide a single point of contact to help your organisation succeed in Macquarie Park. Our staff will provide the practical support needed to establish and grow businesses in our City.

We are working hard to reduce the regulatory burden by creating greater certainty and awareness, working with our partners in government and industry to achieve this across the three tiers of government.

I am confident that our collaborative approach will create a win-win situation for all of our stakeholders, benefiting our City and our partners.

Together, we can create an even more vibrant and prosperous City.

Wayne Rylands

Wayne Rylands
City of Ryde Chief Executive Officer

Why Macquarie Park?



Strategic location

Macquarie Park is located in close proximity to Sydney's Central Business District and is easily accessible via public transport, including trains, buses and the Sydney Metro Northwest. It is also situated near major arterial roads, including the M2 and Lane Cove Tunnel, providing access to other parts of the city including international gateways.

The average time it takes to travel from Macquarie Park to the following locations by car:

- Sydney CBD - 25 minutes
- Sydney Airport - 35 minutes
- Western Sydney Airport - 45 minutes



Business and Innovation

Macquarie Park is home to a diverse range of businesses, including global technology companies. This has created a dynamic business and innovation ecosystem, attracting both established and start-up companies to the area.



Highly skilled workforce

Macquarie Park is home to one of Australia's top 10 universities - Macquarie University. Macquarie University is a global leader in synthetic biology and has helped Macquarie Park become a hub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 academic and industry partnerships.

Multiple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and other world leading universities are also within a short commute, helping Macquarie University create a pipeline of talent for businesses in Macquarie Park.



Amenities and lifestyle

Macquarie Park offers a high quality of life, with a range of parks, recreational facilities, retail and dining options. The area is also home to Macquarie Centre, one of the largest shopping centres in Sydney, and boasts a range of residential options, including apartments and houses.



Sustainability

Macquarie Park has a strong focus on sustainability, with several initiatives in place to reduce the area's carbon footprint. Commercial developments continue to push the envelope for sustainability and energy efficiency through construction and final built form.



Inter-regional connectivity

Macquarie Park is the closest commercial precinct of scale to the Hunter and Central Coast regions of NSW. With a population exceeding 1 million people, these regions are at the heart of the Australia's renewable energy transition. Macquarie Park is less than two hours from the Port of Newcastle - where plans are underway to deliver one of Australia's first hydrogen hubs.

Overall, Macquarie Park offers a range of advantages, including a strategic location, a dynamic business and innovation ecosystem, a highly skilled workforce, a high quality of life, and a pipeline of talent. These factors have helped to establish Macquarie Park as a thriving and globally competitive destination to attract businesses, residents and visitors alike.

How we will support your investment into Macquarie Park:

City of Ryde
Economic
Development
Concierge

...leveraging the City's culture, talent, industry, location, and its built and natural assets to support the City's long-term prosperity beyond the next century.

2023 will see the City of Ryde take a more strategic and contemporary approach to economic development within the region.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keholders will see the City of Ryde become even more responsive to the larger and more complex issues that affect growth and investment in the City.

Site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Macquarie Park and the surrounding region has a variety of sites available for businesses to move into or for redevelopment to deliver a bespoke facility. In addition to understanding these sites, we have an extensive network of developers, architects, and collaborators working within Macquarie Park who are eager to explore how they can support new businesses moving into the City. Council can also help collaborators navigate various Government approval processes.

Networking and familiarisation visits

Our strategic focus is to attract new investment into the City, particularly Macquarie Park, while also supporting economic growth for existing businesses. We will take a solutions-focused, forward-thinking approach towards facilitating economic outcomes for the City. To support investment and growth, we will work with a diverse range of government, business, industry and community partners to:

- Reduce the risks of doing business in the City of Ryde
- Reduce the costs of doing business in the City of Ryde, and
- Create opportunities for economic activity and growth in the City of Ryde.

We will do this at a nationally significant scale, leveraging the City's culture, talent, industry, location, and its built and natural assets to support the City's long-term prosperity beyond the next century.

To deliver on our economic development objectives, the City of Ryde will implement a 'concierge' model for its economic development activities. Complementing the work of Government agencies such as Investment NSW and Austrade, the City of Ryde will seek to be a stakeholder's first point of contact when doing business in the City. Importantly, the City of Ryde's concierge approach will ensure that the team takes a concerted effort to listen to the needs of businesses and investors. We will share this feedback transparently across Council and other levels of Government, working to address and resolve issues wherever possible and practicable to do so.

The City of Ryde's dedicated team will help investors and businesses navigate Government red tape, provide guidance on grants and incentives, facilitating cross-industry networking, and providing other assistance where appropriate.

The concierge model also extends to international engagement and government relations. Working with international delegations, trade missions, trade committees, and government agencies, the City of Ryde will curate bespoke tours to ensure visitors to the City feel welcomed and informed about what the City has to offer in relation to economic investment and trade opportunities. We can facilitate tours of Macquarie Park, engagement with Macquarie University, and help you engage with other like-minded businesses operating within Macquarie Park.

7

New South Wales is Australia's largest economy

with an established, highly innovative technology system.

Australia



13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25.9m
population



16
free trade
agreements (FTAs)

New South Wales



31%
share of national output



2,000
active startups



314,000
technology workforce
(more than any other state)

The NSW economy is larger than Singapore, Malaysia or Hong Kong

Sydney



#1
Top-ranked startup
ecosystem in the
southern hemisphere



9th
most attractive city in
the world for digital
experts

Macquarie Park



2nd
largest commercial
district in NSW, on track
to become fourth largest
Australia-wide by 2030



10%
of the world's top 100
companies (Australian
Headquarters) located here.
Australia's original innovation
district, home to
Macquarie University

9

An exciting time to be in Macquarie Park, Sydney, Australia



Macquarie Park is home to 10 percent of the world's top 100 companies

Located within the City of Ryde Local Government Area, Macquarie Park is Sydney's premier innovation district – built on the foundations of a combined education and employment campus, sprawling across nearly 7km² of high-quality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s.

Macquarie Park is currently the largest non-CBD office market in Australia and is well on track to becoming Australia's fourth-largest commercial precinct by 2030. When compared to other commercial precincts across Australia, Macquarie Park has distinct advantages in the major economic functions of:

- **Education** – Macquarie University is one of Australia's top-ranking research institutions and has one of the highest-ranked MBA programs in Australia.
- **Research and development** – Many businesses and institutions operating within Macquarie Park invest in research, including in partnership with Macquarie University. Other researchers include companies such as Abbott Australasia and AC Nielsen Research.
- **Knowledge intensive sectors** – Significant clusters of pharmaceutical, media,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s.
- **Health services** – Macquarie University Hospital (Australia's first and only fully integrated academic health sciences centre) is located within the Macquarie Park Precinct.

Building on these major economic functions and the talent of local workers, Macquarie Park is home to a significant number of business clusters, inclu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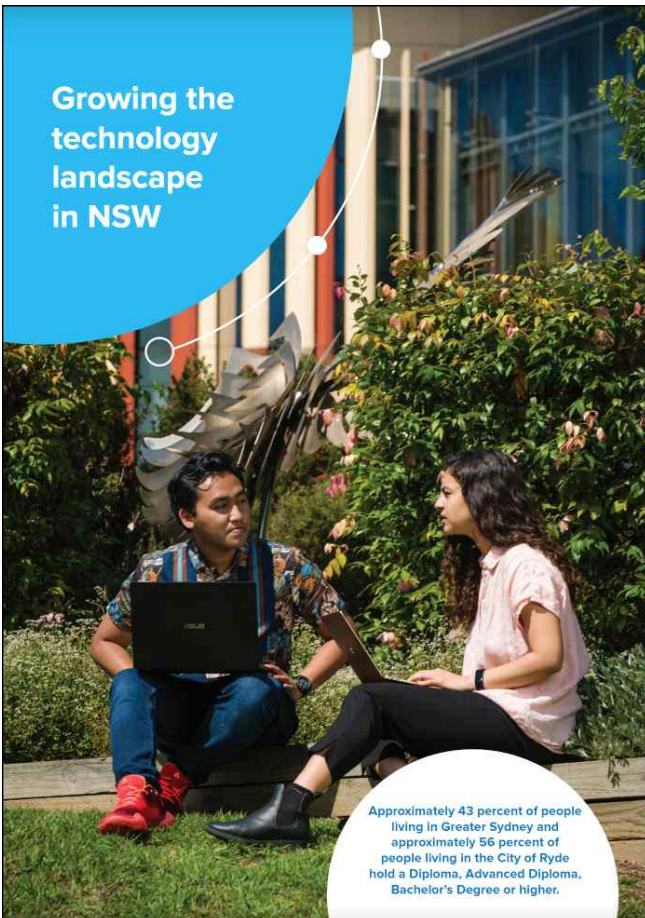
- **Medical and pharmaceutical** (AstraZeneca, Biogen, Cochlear, Johnson & Johnson, Abbott, Sanofi)
- **Media,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Dell, Schneider Electric, Meridian IT Australia, Optus, Ericsson, Foxtel, Australian Radio Network, Macquarie Park Data Centre)
- **Digital** (Canon, Fujitsu, Konica Minolta, Schneider Electric, Phillips, Panasonic, etc)
- **Transport and logistics** (Transport for NSW, Hyundai, Volvo, Kia, CHEP, etc)
- **Advanced manufacturing and technology** (3M, BAE systems, BOC Ltd, Memjet, Ecolab Australia, Proctor & Gamble Australia, etc)
- **Other** (Hasbro, Arbonne cosmetics, Aristocrat, Raytheon Australia, Relyon Australia, etc)

Macquarie Park has a higher concentration of employment in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as well as education and training, compared to the Sydney average.

Macquarie Park is the number one postcode for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s in Australia. Furthermore, Macquarie University operates two incubators,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new start-up businesses operating across a wide range of industries.

11

Growing the technology landscape in NSW



Approximately 43 percent of people living in Greater Sydney and approximately 56 percent of people living in the City of Ryde hold a Diploma, Advanced Diploma, Bachelor's Degree or higher.

Ryde's got talent!

NSW has a large pool of technology talent, and it's growing. As home to almost a third of Australia's population, NSW hosts the largest number of STEM graduates and technology 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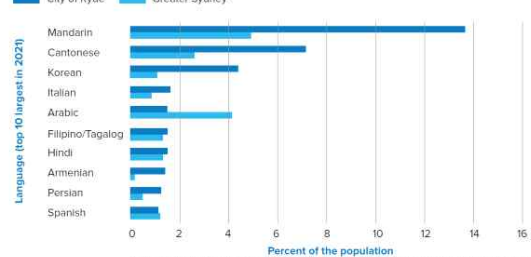
Approximately 43 percent of people living in Greater Sydney and approximately 56 percent of people living in the City of Ryde local government area hold a Diploma, Advanced Diploma, Bachelor's Degree or higher.

Sydney is particularly attractive for digital workers, ranking ninth in a global study of digital experts' willingness to relocate for work. Sydney's diversity of workplace options, high-quality working spaces, and quality of life put Sydney ahead of San Francisco and Toronto in this survey.

We are well educated and diverse. There are over 275 languages spoken in NSW, with 78 different languages spoken in the City of Ryde. Nearly 50 percent of the population of the City of Ryde speak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at home.

Language spoken at home, 2021

City of Ryde Greater Sydney



Sour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2021 (Usual residence data). Compiled and presented in profile. All by. All informed decisions

13

We are educating for the future

Education institutions across NSW are delivering an ongoing pipeline of skilled technology workers. NSW is home to six of the world's top 200 universities, with Macquarie University in Macquarie Park ranked 10th in Australia and 175th in the world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3), offering over 700 different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qualifications across a variety of disciplines.

Australia's lead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 TAFE NSW, has industry-qualified and experienced teachers bringing up-to-date, real-world skills directly to the classroom.

TAFE NSW offers flexible learning options, including part-time and full-time education, online and face-to-face learning. The City of Ryde supports two TAFE NSW campuses:

- TAFE NSW Ryde – an internationally renowned specialist training centre for hospitality, tourism, horticultur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 TAFE NSW Meadowbank, which has recently been transformed into a technology-focused campus and sits alongside a new high school to form the Meadowbank Education and Employment Precinct.

The transformed TAFE NSW Meadowbank fea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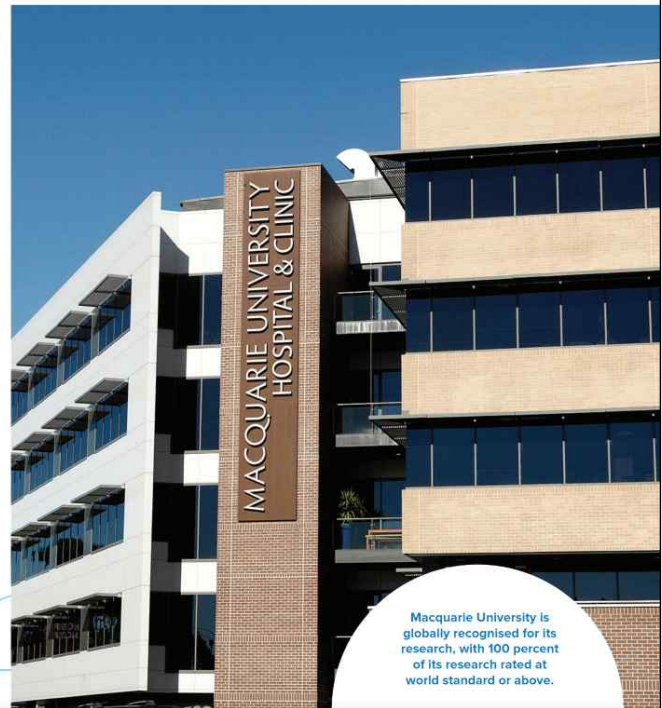
- A new Multi-Trades and Digital Technology Hub, to provide a unique industry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space, transforming training delivery to be more digitally interactive and industry-focused
- Improved campus access to the Meadowbank Railway Station
- An Institute of Applied Technology-Digital – a new tertiary education offering from the NSW Government where the Institute partners with universities and industry to provide a revolutionary new way to learn, bringing the latest thinking and trends to life. Foundation partners include Microsoft,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TAFE NSW, and Macquarie University.

Investing in world-class research

NSW's highly reputable universities are home to world-renowned research in an array of fields. Macquarie University is globally recognised for its research, with 100 percent of its research rated at world standard or above. Additionally, five of Macquarie University's researchers are in the top one percent of the world's scientific authors.

Australia's national science agency, 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also has a strong presence across NSW, including existing relationships with Macquarie University and other businesses operating in Macquarie Park.

Australia's first-of-its-kind
\$96 million RNA research and pilot
manufacturing facility will be built
at Macquarie University and
operated by Myeloid Therapeutics.



Macquarie University is globally recognised for its research, with 100 percent of its research rated at world standard or above.

Existing and diverse infrastructure

The NSW Government is actively investing in the intellectu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that will strengthen NSW's position as a technology hub in the Asia Pacific.

Macquarie Park, which has an extensive public transport network (including metro rail) connecting workers, businesses, and residents across Greater Sydney and regional NSW, is home to over 1 million m² of commercial space and capacity to grow to nearly 3.6 million m² of commercial space by 2065.

An analysis by the Property Council of Australia of Central Business District (CBD) and Non-CBD vacancy rates across Australia in July 2022 identified Macquarie Park as having the fifth-lowest vacancy rate of 10.42 percent, outperforming the CBDs of every other State in Australia.

Macquarie Park's performance can be linked to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access to Macquarie University and high-volume rapid transit through the Northwest Metro rail line. Additionally, Macquarie Park's A-Grade and B-Grade buildings continue to offer more affordable rents than other CBD and non-CBD markets in Greater Sydney as demonstrated in the table below.

Net rental price per square metre per ann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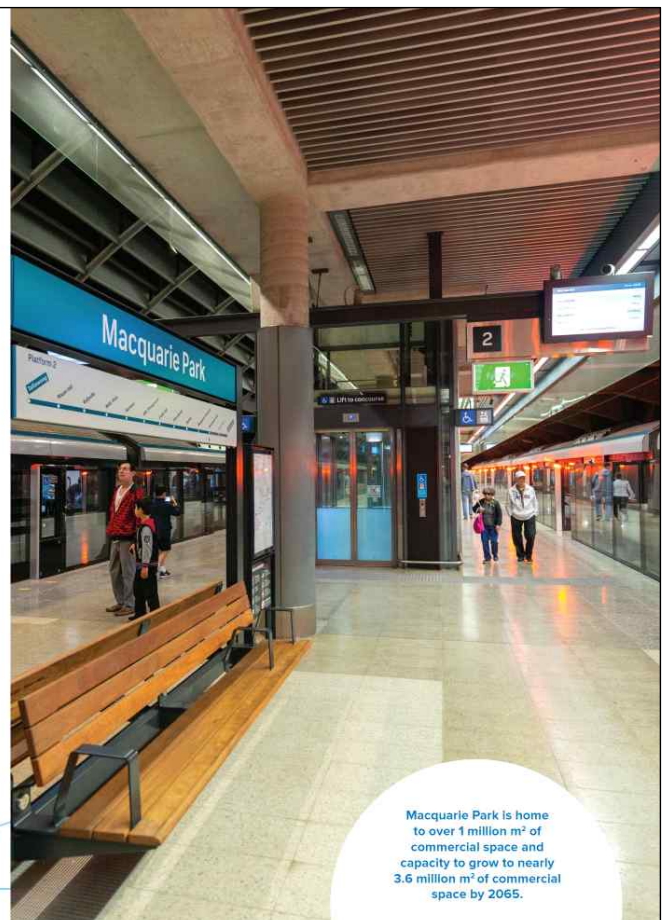
Suburb	Premium Grade	A-Grade	B-Grade
Sydney CBD ^a	\$1,005 - \$1,525	\$870 - \$1,325	\$675 - \$1,035
North Sydney	\$950 - \$1,200	\$750 - \$850	\$675 - \$775
Parramatta	\$620 - \$650	\$500 - \$600	\$425 - \$500
St Leonards	N/A ^b	\$660 - \$750	\$500 - \$600
Chatswood	N/A ^b	\$625 - \$725	\$500 - \$550
Macquarie Park	N/A^b	\$450 - \$480	\$360 - \$400
North Ryde	N/A ^b	\$360 - \$420	\$300 - \$360
Lane Cove West	N/A ^b	N/A ^c	\$290 - \$320

Table 3 - Net rents m²/pa (July 2022)

^a No Premium stock in this market

^b No A-Grade stock in this market

^c As of September 2022



Macquarie Park is home to over 1 million m² of commercial space and capacity to grow to nearly 3.6 million m² of commercial space by 2065.

Fintech

Sydney is Australia's financial capital, home to its financial services industry and the first major financial market to open each day.

Sydney's financial capabilities have been built around the nation's \$2.3 trillion superannuation (pension) fund savings pool. It is home to 80 percent of foreign banks operating in Australia, eight of the nation's largest fund managers and most of its financial services regulators.

Financial technology (FinTech) firms which began and grew in Sydney, such as Afterpay, ZipCo, and Brighter, benefit from a dynamic fintech ecosystem. Australia's supportive environment for fintech includes the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s Enhanced Regulatory Sandbox, making it easier for businesses to test the market, an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Asia-Pacific market expansion programs.

Macquarie Park has a growing presence of fintechs, some of which have come through Macquarie University's incubator programs.

Australia



5th
largest pension
savings pool in
the world



\$10
trillion-dollar*
financial services industry



14%
of our fintechs
have raised over
\$100 million



24%
of Australian
fintechs have
female founders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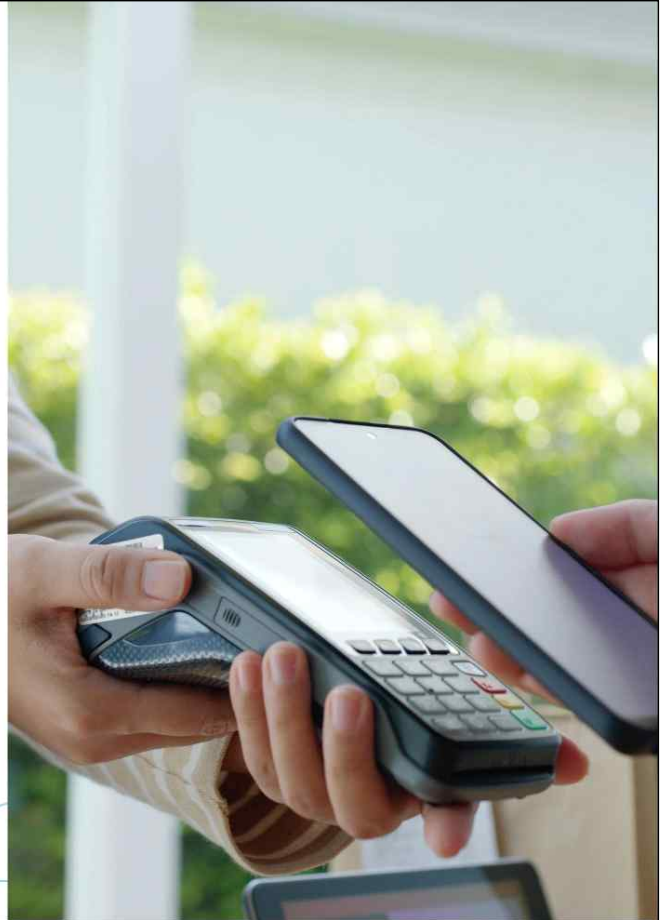
New South Wales



60%
of Australian
fintech startups
based here



#11
Sydney's ranking
as a global fintech
hub



Cyber Security

About 40 percent of the cyber security businesses based in NSW are foreign providers seeking to harness the State's 10,000-strong cyber security workforce.

NSW is building its talent base by encouraging school students to enter the sector, building the skills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and subsidising cyber businesses hiring students.

With annual revenue in the cyber security sector forecast to hit \$6 billion by 2026, the NSW Government has created a cyber hub to accelerate the sector's growth. Its programs include an accelerator in residence initiative, open to international applicants and designed to attract new participants to NSW.

Seven of NSW's 11 public universities have dedicated cyber research capabilities, including Macquarie University. They are nurturing talent and building the knowledge needed to ensure NSW stays at the forefront of the ever-evolving cyber threat.

Macquarie Park has a growing presence of businesses involved in cyber security, including Meridian Group International, which operates across 50 global offices in nine different countries, and growing local businesses such as Hubify Limited.

Australia



8th
on Global
Cyber Safety
Index, ranking
lowest risk from
cybercrime



\$7.6bn
forecast cyber
security spending
in 2024



43%
of cyber security
businesses export
globally

20

New South Wales



40%
of Australia's
cyber workforce
live in NSW



200+
cyber security
businesses are
based here



\$240m
to boost NSW
Government's
cyber security
resilience



Film and television production

NSW is Australia's leading screen production state for feature films and TV dramas.

Competitive financial incentives include lucrative rebates for post-production, digital and visual effects production (PDV). NSW's diverse locations, experienced crews, world-class facilities and enviable lifestyle are also major attractions for Australian and international producers and directors.

NSW's long and continued investment in the film industry has enabled strong digital capability in PDV and computer-generated imaging (CGI). Sydney is home to world leading digital creative studios such as Animal Logic and Industrial Light and Magic, opened with support from the NSW Government.

Sydney is also home to the southern hemisphere's largest end-to-end production facility. This will be complemented by Pacific Bay Resort Studios & Village, on the Mid-North Coast of NSW, Australia's first fully integrated feature-film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complex. Merging advanced virtual studios and sound stages with accommodation and lifestyle facilities, the complex is strategically positioned between Sydney and Byron Bay.

In addition to educational opportunities at Macquarie University, Macquarie Park has many connections to the film industry, ranging from small local film makers through to companies with a global presence. Creatives are welcome at Macquarie Park, with companies such as Foxtel and the Australian Radio Network headquartered in the area.

Other companies operating in Macquarie Park include Fujifilm, whose FUJINON Cine Lenses have been used in movie and television production sites around the world for their advanced scene depicting capability.

Australia



\$226m
game development studios' annual revenue



\$30bn
creative industries' annual economic contribution



82%
of game development income generated from offshore markets and investment

22

New South Wales



70%
of Australia's total creative industry exports



42%
of creative industry jobs based here

Home to almost half of Australia's post-production industry



Quantum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NSW's quantum ecosystem is globally significant, with capabilities across the quantum stack.

Among the local start-ups attracting significant interest and venture capital investment into NSW are firmware producer Q-CTRL, Silicon Quantum Computing, which is developing a 10-qubit prototype quantum integrated processor, nanomaterials producer LuoGem, and high-resolution spectrograph producer Redback Systems.

These firms are a result of the innovation from Sydney's universities, where quantum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a key strength. Four NSW universities with leading quantum technology expertise have formed the Sydney Quantum Academy: University of Sydney, University of NSW,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and Macquarie University, with Macquarie University being home to the Data Science Lab and the Centre for Applied Artificial Intelligence – a world-leading research centre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process automation.

Australian businesses are big consumers of AI, with 89 percent of large businesses using this technology. The workforce is strong, with 470,000 people working in the top-10 AI relevant occupations, including software programming and development. NSW employs more than two-fifths of Australia's software and application programmers. The State has a strong local cluster of AI businesses, similar in scale to Berlin and close to those of Singapore and Toronto.

The data and digital specialist arm of Australia's national science agency, CSIRO's Data61, holds one of the world's largest collection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rtise in AI and data science. It also hosts the new National AI Centre, part of Australia's Artificial Intelligence

Action Plan. Data61 has 14 sites in NSW, including in Macquarie Park.

Australia's 2040 quantum potential



16,000
j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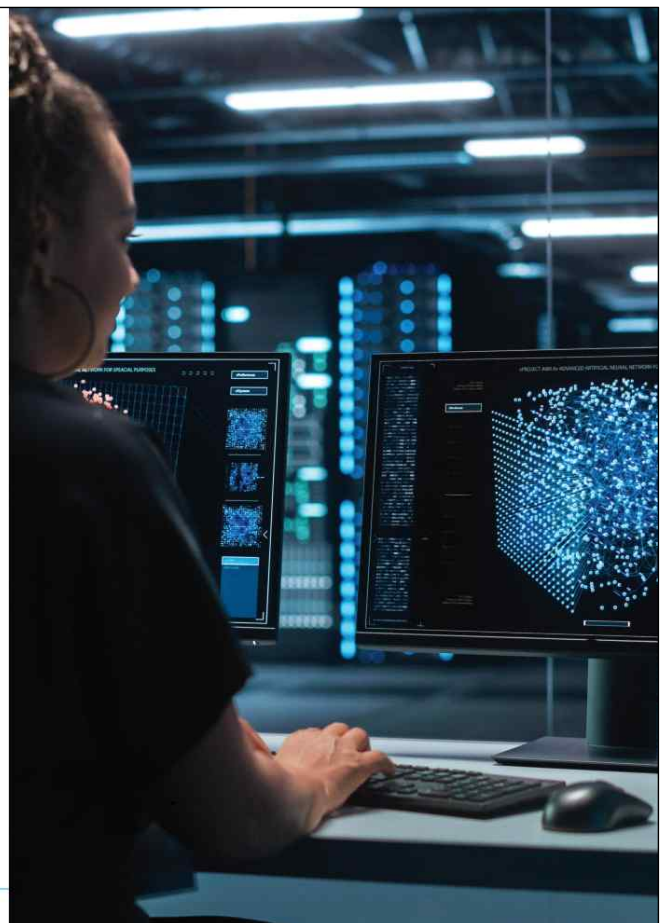
\$4bn
annual revenue

24

New South Wales



50%
of Australian Universities with world-leading quantum science capabilities based here



[붙임자료.2]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자료



Welcome

In the lead-up to the Opera House's 40th anniversary in 2013, we set out our ambitions for a decade of renewal, to ensure the Opera House continues to inspire generations of artists, audiences and visitors.

Five years on, approaching the halfway point in that decade, we refreshed those ambitions, having reflected on the significant cha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world around us, and what we have done. This document is the result. It outlines what we hope to have achieved by our 50th anniversary in 2023.

A defining project will be renewing the Concert Hall, which will close for up to two years from early 2020 while we undertake significant artistic, acoustic and accessibility improvements in our largest internal venue. The challenge is to ensure we make the most of this once-in-a-generation opportunity, drawing on our experience in successfully upgrading the Joan Sutherland Theatre in 2017.

At the same time, we will expand the spectrum of art and experiences we offer, fostering new and diverse art forms and audiences, and encourage creativity more broadly.

In short, we aim to live up to the promise of the building in everything we do.

We are grateful to our Trustees and staff for their input and vision in preparing this refreshed strategy and look forward to working together to implement it, for the benefit of the many people who love the Opera House.

Louise Herron AM
Chief Executive Officer
October 2018

2-3

Strategic goals 2018-23 Executive summary

Over the next five years, we will continue to build on our successes, with a keen eye on the anticipate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is is a summary of our goals, which are set out in full on pages 10-15, along with our key achievements.

People

Living our values: Provide the leadership, environment and tools our diverse and inclusive workforce needs to thrive and plan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Opera House and its operations.

Safety and security: Safeguard the health, safety and wellbeing of our staff and everyone on site through appropriate risk management, infrastructure, systems and resourcing. This includes injury- and incident-free delivery of our capital works.

Relationships: Further deepen and enrich our relationships with the community and our many stakeholders, including resident companies and artists, government, donors, partners and the architecture, design, heritage and engineering professions.

Experiences

Audiences and visitors: Broaden the Opera House's reach, across Australia and globally, through:

- **Art:** Aiming for excellence in everything we do – with artists, colleagues and audiences – to realise our mandate for creativity, engagement and entertainment;
- **Visitor experience:** Making it more appealing, on site and online, for everyone to explore the full range of Opera House experiences – its history, performances, events, bars and restaurants, tours and retail – and delivering a consistently excellent customer experience; and
- **Digital engagement:** Investing strategically in digital capability, technology and creative content to share and amplify what we offer, reaching new audiences and driving deeper engagement.

Building

Capital works: Complete all building renewal projects within the available budget, including the Concert Hall and entry upgrades, and the new function and creative learning centres. Our aim is to optimise artistic, audience and visitor amenity, accessibility, safety and security improvements, while minimising disruption.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Take responsibility for conserving the Opera House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nd delivering a best-practice asset maintenance program.

Sustainability: Continue to be a leader in sustainability, including by achieving and maintaining a six-star Green Star rating and developing a strategy to become carbon-positive.

4-5

People



Mardi Gras (2018)
Credit: Daniel Boud

What we have done

Clarity, consistency, commitment, capability: Established our mission, vision and values, set clear and consistent goals, strengthened the leadership and capability of our teams and, as a result, increased our employee engagement score to 78%.

Strategic plans: Prepared and implemented plans that encapsulate our commitment to work health and safety, conservation management, artistic excellence and diversity, visitor experience, reconciliation action, accessibility, sustainability and risk.

Relationships: Deepened and enriched our relationships with the community and many stakeholders, including resident companies and artists, government, donors, partners and the architecture, design, heritage and engineering professions. This has been critical to our success.

Next generation: Encouraged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talent through a range of initiatives, including MADE (Multidisciplinary Australian Danish Exchange), the Lloyd Martin Travelling Scholarship for emerging arts leaders and Crescendo for emerging classical artists, as well as an artist and sector development program that supports and engages the local arts community.

What we will do

Living our values: Provide the leadership, environment and tools our diverse and inclusive workforce needs to thrive and plan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Opera House and its operations.

Safety and security: Safeguard the health, safety and wellbeing of our staff and everyone on site through a strong safety culture, using appropriate risk management, infrastructure, systems and resourcing. This includes the injury- and incident-free delivery of our capital works.

Strategic plans: Implement and evolve our key strategies, including work health and safety,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Fourth Edition, artistic and visitor experience, as well as our reconciliation action, acces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lans.

Risk culture: Strengthen the Opera House's culture of effective risk ownership and mitigation, combined with robust reporting, so that risks and opportunities are appropriately identified and managed.

One voice: Present a unique and unified brand and narrative that communicates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e Opera House, what it stands for and everything it has to offer.

Partners and supporters: Build on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made by donors and corporate partners, recognising the key role they play through their advocacy and financial support, including sustaining the excellence and ambition of our artistic offering and fostering the next generation of talent.

10-11

Experiences



Ice Cube at Vivid Live (2018)

What we have done

Invited people in: The Opera House is increasingly recognised as a place for everyone, with improved accessibility and more non-traditional, complex and challenging programming, including: Vivid Live and other contemporary music and performance; First Nations artists, including for Badu Gili (daily lighting of the Bennelong sails) and the Dance Rites competition; talks and ideas; and children's programming.

Artistic strategy: Launched the 2018-21 Artistic Strategy, which has as its artistic purpose 'to be unmissable' and sets out in detail what that means and how we will achieve it.

Presenters: Balanced our roles as a performance venue for our resident companies and commercial hirers and a presenting organisation through Sydney Opera House Presents.

Visitors: Expanded and improved the range of our facilities and offering, including tours and food and beverage, which now provide a very significant contribution to our business operations and sustainability.

Brand renewal: Created an award-winning new brand identity and campaigns to better communicate the full scope and diversity of the Opera House's activities.

Digital transformation: Implemented a new website, improving reliability and our customers' online experience.

What we will do

Artistic ambition: Aim for excellence in everything we do – with artists, colleagues and audiences – to realise our mandate for creativity, engagement and entertainment through:

- Balancing challenging artistic experiences with financial success;
- Deepening our engagement with more diverse audiences and programming for the next generation; and
- Valuing and respecting our partners' contributions – including resident companies, commercial hirers, co-presenters, artists and staff – and upholding our role as a leader in the broader arts community.

Visitor experience: Make it more appealing, on site and online, for everyone to explore the full range of Opera House experiences – its history, performances, events, bars and restaurants, tours and retail – and deliver a consistently excellent customer experience.

Digital engagement: Invest strategically in digital capability, technology and creative content to share and amplify what we offer, reaching new audiences and driving deeper engagement, across Australia and globally.

12-13

Building



Joan Sutherland Theatre stage

What we have done

Forecourt: Completed the Vehicle Access and Pedestrian Safety (VAPS) project, removing thousands of vehicles from the Forecourt, which is now an open, inviting, pedestrian-friendly space for 10.9 million visitors each year.

NSW Government Renewal funding: Secured funding to develop a capital works masterplan and deliver the Stage 1 Renewal projects.

Joan Sutherland Theatre (JST): Completed the JST project to renew equipment and systems, as well as creating a new rehearsal room and improving the orchestra pit, safety, accessibility and the experience for artists, audiences and visitors. Together with our resident companies, we have enjoyed exploring the resulting creative possibilities and identified strengths and lessons for current and future capital projects, including the Concert Hall upgrade.

Sustainability: Achieved a Green Building Council of Australia four-star Green Star performance rating and the Opera House was certified as being carbon neutral.

Conservation: Completed and rolled out the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Fourth Edition, which was awarded the 2018 National Trust Award for best heritage resource publication.

What we will do

Stage 1 Renewal projects: Complete all building renewal projects within the available budget, including the Concert Hall and entry upgrades, new function and creative learning centres. Our aim is to optimise artistic, audience and visitor amenity, accessibility, safety and security improvements, following extensive consultation.

Minimise disruption: Carry out all capital works in the most efficient, least disruptive way, being as considerate as possible of everyone affected and drawing on the lessons of completed projects.

Conservation: As custodians, take responsibility for conserving the Opera House's heritage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In doing so, we will appropriately engage all key stakeholders, including staff, resident companies, government and the architecture and heritage communities.

Maintenance: Deliver a best-practice program of asset maintenance and upgrade ageing infrastructure to manage evolving risks and benefit from new technologies.

Future major project: Scope at least one bold, future-facing project.

Sustainability: Continue to be a leader in sustainability, including by achieving and maintaining a six-star Green Star rating and developing a strategy to become carbon-positive.

14-15

Key achievements 2013 – 18

2013

40th anniversary celebrations with Danish Crown Prince Couple
Idealist donor program established
Multidisciplinary Australian Danish Exchange launched
Inaugural All About Women festival

2014

Secured \$13.7m in NSW Government funding for Renewal planning
New stage management system and Recording and Broadcast Studio
Getty Foundation grant to develop concrete conservation strategy
Resident companies and Sydney Opera House Presents presentations win nine Helpmann Awards

2015

NSW Government reserves \$202 million for Stage 1 Renewal projects
Vehicle Access and Pedestrian Safety project completed
Opera House achieves four-star Green Star rating
Dance Rites competition launched
New Welcome Centre opens
Utzon – Le Corbusier tapestry purchased

2016

Forecourt becomes pedestrian-friendly plaza with removal of non-essential vehicles
New brand launched and wins Cannes Lion Awards
Benelong wins Good Food Guide new restaurant of the year award
The Lounge opens in the Box Office foyer

2017

Stage 1 Renewal begins
Joan Sutherland Theatre closed for renewal (May-December)
Theatre Machinery Project for Joan Sutherland Theatre completed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Fourth Edition published
New website launched
Badu Gili daily sails lighting launched

2018

Opera House's first Mardi Gras float
New three-year Artistic Strategy commences
Vivid Live record 10th year
Biannual Unwrapped series launched
Opera House certified as carbon-neutral
45th anniversary celebrations
New staff uniforms designed by Dion Lee

16-17

Key targets 2019 – 23

2019

Yallamundi Rooms open
Under the Steps
refurbishment complete
Security systems and site entry
infrastructure upgrade complete

2020

Concert Hall closes
for Renewal works
New digital tours
experience launches

2021

Concert Hall reopens
Opera House achieves six-star
Green Star rating

2022

New Creative Learning
Centre opens

2023

50th anniversary celebrations
attract significant and positive
local and global attention
Opera House is a recognised
leader in everything it does
Staff engagement score reaches 80%
Performance and tours
patrons total 2.25 million
Unique website visits reach 7 million
Annual precinct revenue
reaches \$400 million
\$100 million in private
funding raised since 2013
Opera House remains Australia's premier
attraction for international visitors
Annual economic contribution
reaches \$1.5 billion



Badu Gili: Djambawa Marawili AM (2018)

[붙임자료.3]

뉴사우스웨일스주립대학교 한정훈 교수 자료

※ 발표자 요청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발표자료의 일부만 인용

호주의 주택에 대한 과세 및 정책: 최근의 경향

서울시의회 세미나

한정훈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2023 5.12

About Australia & Me

Australia Property Tax

Australia Property Tax Reform

Land Tax, Stamp Duty, Capital Gain Tax

Public Opposition

Implications

About me

한정훈 (Hoon Han)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교수 *도시계획(Urban Planning)분야 호주 최초 한인출신 정교수

주요경력

2023.7.1 호주국립도시주택연구원 원장 취임예정

2022-2023 호주뉴질랜드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2022- 현재 정교수 / 호주 시드니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세계대학순위 50 내)

2011-2017 부교수 / 호주 시드니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09-2010 조교수 / 호주 GRIFFITH UNIVERSITY

2004-2009 호주국립주택도시연구원 연구원

주요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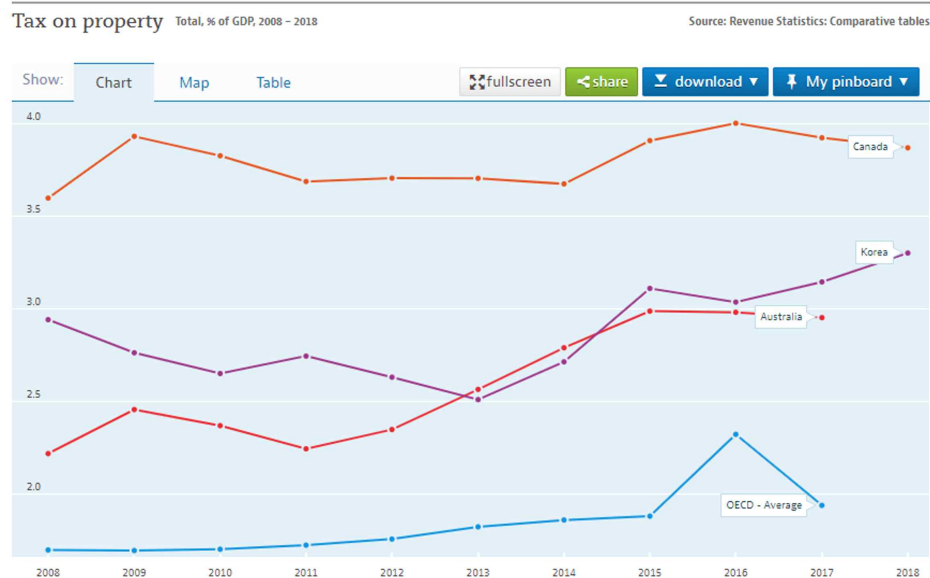
영문저서 100여편이상, 국문저서 2편, 논문피인용 2,000 회 이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초빙교수 (2017)

한호경제협력위 전경련 호주대표 초청 발표 (2014)

재외동포 차세대 지도자 호주대표 선출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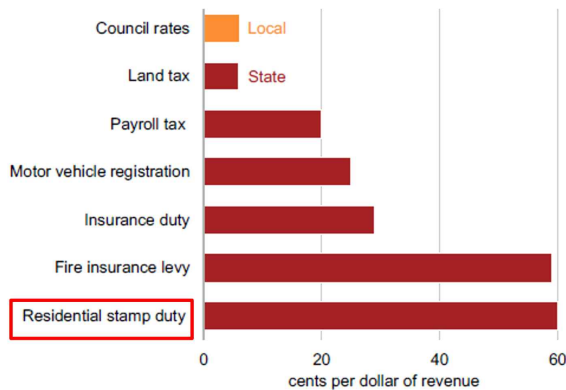
호주의 부동산세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



Source: <https://data.oecd.org/tax/tax-on-property.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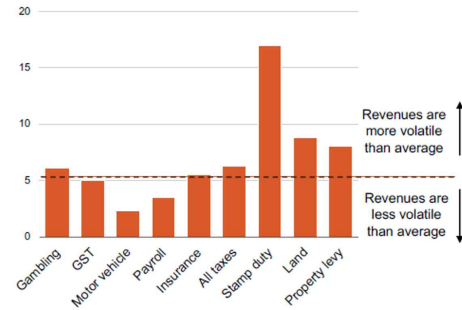
세율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영향

Loss of economic activity for each \$ increase in tax



Notes: All estimates are from KPMG Econtech (2011) other than council rates, which come from the KPMG modelling for Treasury. These estimates are broadly consistent with Treasury estimates which evaluated a smaller range of taxes (Cao et al (2015)). This more recent work suggests that the economic burden of broad-based land taxes may be even lower, with a loss of economic activity of negative 10 cents for each \$ increase in tax, since the revenue from foreign owners of land would exceed the economic costs imposed on Australian residents. Other estimates of the excess burdens of taxation come to broadly similar findings – for instance Nassios et al (2019). Source: Daley et al (2018b, figure 9.1).

Standard deviation between annual revenue growth and long-run average growth in Australia, 2000-01 to 2015-16



Notes: 'Property levy' shows the revenues that would have been raised with a broad-based property levy of 0.5 per cent applied to unimproved land values had it been in place since 2000-01.

Source: Daley et al (2018b, figure 9.4).

호주의 KPMG 분석에 따르면, 세금 \$1 증세시 경제활동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부동산 취득세가 \$0.60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유세는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호주의 부동산 세제개혁안 시사점

- 호주의 부동산 세제는 취득세 없애고 보유세를 높이는 추세임 (Simplified tax).
- 현 대다수 주에서 첫주택구매자의 취득세를 면제/감면해 주고 있음
- 부가가치세를 레버리지로 활용
- 부동산 세제개혁을 20년간 진행 (Long-term reform).
- 부자들의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 소득세, 기업세를 줄여 전체 세제부담을 유지하려는 균형감각유지 (Tax mix strategy)
- 호주의 부동산 시장을 코로나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호주정부는 부동산세제개혁안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주요 목표
- 향후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투명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동산 감정평가 시스템의 구축

[붙임자료.4]

오uckland 남부 웰빙위원회 자료

South Auckland Social Wellbeing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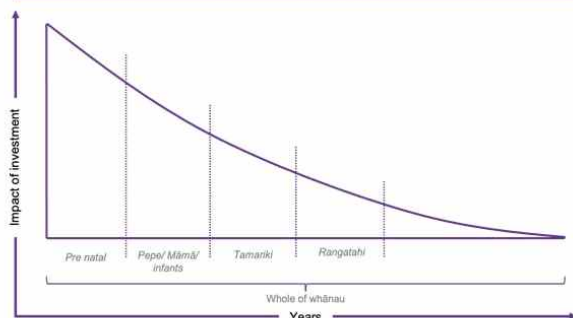
15 May 2023

South Auckland Social Wellbeing Board

- Cross sector **Place Based Initiative (PBI)**, established 2016
- **13 agencies, partnering with community and providers**, to support **positive life course outcomes**
- Focus is on improving **wellbeing** outcomes for **children aged 0-5 years and their whānau**
- Te Whatu Ora Counties Manukau is the **host agency**
- **Te Tiriti o Waitangi and equity for Māori and Pacific peoples** are foundational pillars
- A **locality-based enabler for social and health integration** and **collaborative ways of working**
- **Learn from prototypes to drive system change** at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 SASWB informs the **design of relevant national programmes**



PRIORITISING INVESTMENT IN THE EARLY YEARS – LIFE COURSE APPROA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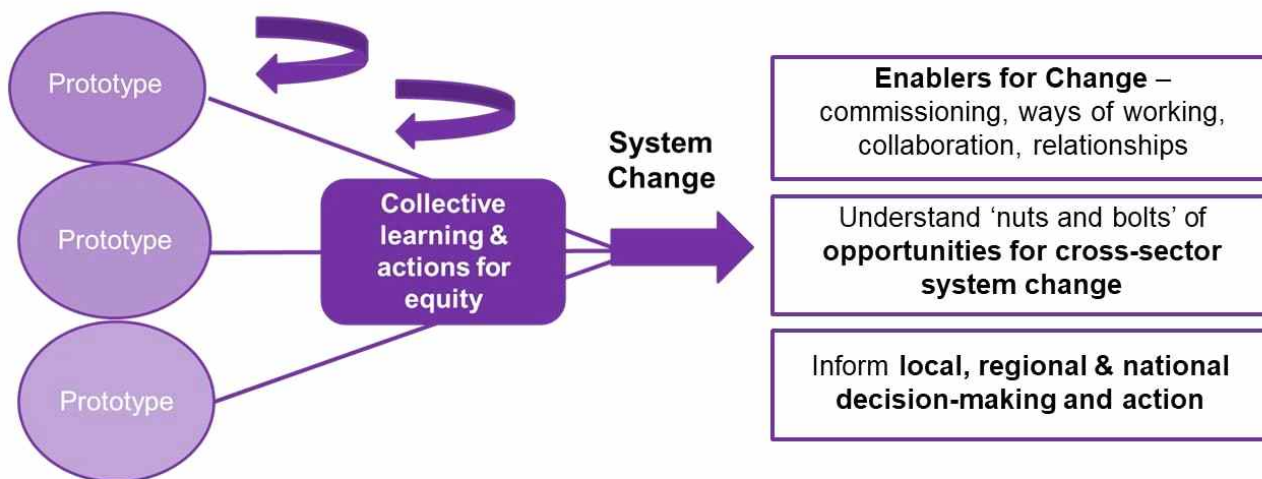
Wellbeing,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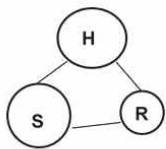
- **WHO:** We are privileged to work with whānau within South Auckland
- Taking a life course approach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irst 2000 days (pre-school years) because that's where we can support change for future generations
- **Whole-of-whānau** approach (not just about individuals)



Our approach is iterative & 'learning by doing'

SWB SOUTH AUCKLAND
SOCIAL WELLBEING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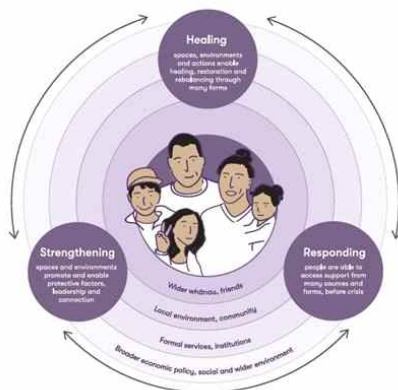


How

Focusing on wellbeing in place for **equity and intergenerational well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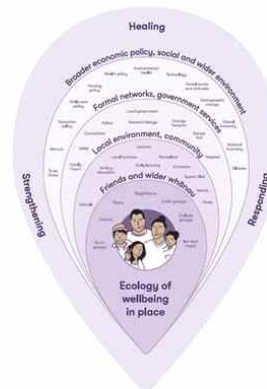


By using Te Tokotoru model of **healing, strengthening** and **responding**



Te Tokotoru (Unbreakable Three)
A systems approach to wellbeing

We then apply Te Tokotoru **across the ecology of wellbeing in place** to do more of what whānau tell us are healing and strengthening



Understanding Tokotoru through the lens of the model—anchored in place

Citation: Hagen, P., Tangaere, A., Beaton, S., Hadrup, A., Taniwha-Pao, R., Te Whiu, D., (2021), Designing for equity and intergenerational wellbeing: Te Tokotoru, The Auckland Co-design Lab, The Southern Initiative.

SWB SOUTH AUCKLAND SOCIAL WELLBEING BOARD

What we do

As a collective of government agencies, grounded in place, we have the mandate and obligation to bring **decision-making closer to whānau & community**, and re-orientate our **collective resources** towards what **matters to whānau** (metrics that matter).

We are uniquely placed to understand and enable the **deliberate reorientation of collective system resources** (time, people, money, skills, expertise, facilities) **towards strengthening, healing, early years & prevention**.

This infrastructure is a **critical component** for collectively grappling with and acting on the liv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order to give effect to meaningful and lasting change

SASWB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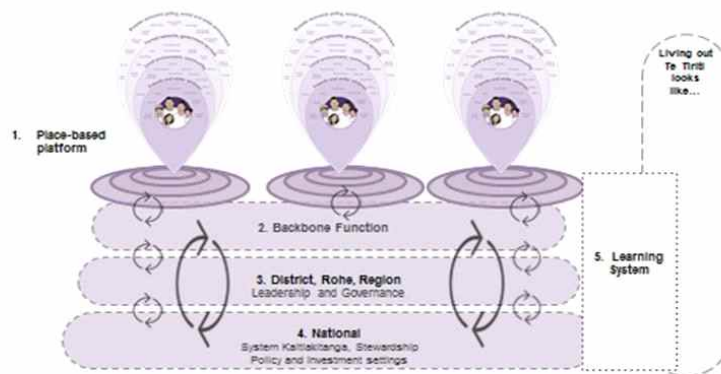
Strategic Management Group

Home Agency Change & Implementation Leads

Implementation Office (Learning & Doing)
"Change Fulcrum"

Launched in 2016, SASWB was one of three PBI's in New Zealand

Purpose: bring together local decision makers and practitioners from social agencies, non-government organisations and iwi to work with families to identify, test and learn from what works (and what doesn't) in their communities.



SWB SOUTH AUCKLAND
SOCIAL WELLBEING BOARD

Helpful resources

[Fair Chance for All Interim Report \(productivity.govt.nz\)](https://www.productivity.govt.nz/publications/fair-chance-for-all-interim-report) - A report by NZ Productivity Commission providing interim findings for an economic inclusion and social mobility

[FINAL PBI-success-framework tool-kit 11-01-2021.pdf \(swa.govt.nz\)](https://www.swb.govt.nz/publications/final-pbi-success-framework-tool-kit-11-01-2021.pdf) - A report providing insight into the role and value of two Place-Based Initiatives (PBIs) as localised and whānau centred adaptive approaches to address complex issues.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f1e3bad68df2a40e2e0baaa/t/619d6ee9ce2a4c268892b683/1637707507280/TeTokotoru+Oct+InnovationBrief+2021.pdf> - A brief introducing the Te Tokotoru model in designing for equity and intergenerational wellbeing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62aaab015a9dfa028e6b6350/t/64519a908e0b5535fd7a040f/1683069614685/Unlocking%2Bthe%2BPotential%2Bof%2BLocal%2BGovernment-Wellbeing%2BEcology%2BSEPT-OCT%2B2022%2B1.1.pdf> - A report drawing together learning and insights with families and communities about the role and potential of local government in activating a wellbeing ecology in place

SWB SOUTH AUCKLAND
SOCIAL WELLBEING BOARD

SASWB(South Auckland Social Wellbeing Board) Success Framework

Figure 1: Overview of the maturity-based success framework across the PBI tiers



Figure 2: Criteria demonstrating progression in the maturity-based success framework across the tiers

Tiers	Pre-establishment	Establishment	Test and learn	Collective action	Collective outcomes
Māori-Crown	Recognition siloed agency approach to address complex needs is not working	The Crown and Māori work together to determine the issues/problems and develop solutions together that are reflected in proposals. Each party retains its own decision-making ability.	The Crown and Māori partner to determine the issue/problem, design the process, and develop solutions. The Crown and Māori make joint decisions.	Māori decide and the Crown assists in implementing the decision made by Māori.	
National	Recognition siloed agency approach to address complex needs is not working PBI placed in area with persistent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s	Mandate from Cabinet to create a PBI with local decision-making rights Funding is allocated to create and enable the PBI structur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ongoing funding to support the work of the PBIs Lead agency supports PBIs' flexibility and manages lightly, recognising the time needed to develop structures and test and learn	Lead agency creates pathway for PBIs to share local insights and identify new opportunities for the work of the PBI (e.g., Joint Venture)	Lead agency uses learnings from PBIs to change social sector process, policies, and procedures at a national level
Regional	A readiness to work differently amongst local leaders Evidence of attempts to work collectively	Regional cross-agency leaders establish formal PBI structures (e.g., governance, mgmt., backbone function) Local leaders (e.g., PBI Board Chair) know the local area and the people and are committed for the long-term Local evidence is used to refine the collective vision Local organisations involved in the PBI develop local protocols for consent and data sharing	PBI has an effective tiered structure of governance, management, and operations based on relationships, trust, and a shared vision Local leaders hold PBIs accountable to the community PBI members develop a growth mindset, are open and flexible in their approach, and willing to trial new ways of working Local evidence is used to develop collaborative initiatives based on a whānau-centred way of working	Agencies and organisations on the PBI governance group seek to influence their organisations to improve systems and processes based on PBI evidence PBIs are testing whānau-centred way of working/ initiatives and building frontline provider capabilities Local evidence is used to assess initiatives and refine the way of working PBIs widen interactions with other inter-sectoral agencies to address whānau aspirations (e.g., economic agencies)	PBI has created and maintained effective processes for cross-agency collective action Local system change has resulted in positive outcomes for whānau PBIs are influencing national level policy and practice and new opportunities are emerging to effect wider system change
Whānau	Whānau are disempowered by social sector agencies and needs are not met	Research with whānau identifies needs, aspirations, and priorities	Whānau have a voice in what is working and not working in the services they receive	Whānau are partners in the co-design services	Whānau determine solutions for their communities Positive outcomes for whānau

[붙임자료.5]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호주 · 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도문열 위원장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건		
<p>○ [도시계획국]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엄격하게 관리 중, 최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대적 개보수 단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1959년 착공 후 14년 만인 1973년에 완성되었으며, 2007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주정부 예산, 기금 등을 활용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 관리, 안전관리 중 - 개관 50주년에 맞춘 개보수 공사에 따라 지하~지상6층까지 단 하나의 계단도 거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BF 설계를 도입함 <p>⇒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 시 약자를 배려한 BF 디자인 도입 및 엄격한 기준에 따른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축물 관리 필요</p> <p>○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지역 기반 이니셔티브(PBI)를 도입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결 할 수 있는 정책 토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위원회가 스스로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오클랜드남부 웰빙위원회는 5세 이하 영유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 <p>⇒ 서울시 약자와의동행 사업 추진 시 市는 가이드라인을 계획하고 각 자치구 현안에 맞는 정책결정 자율성 부여할 필요</p> <p>○ [균형발전본부] 시드니는 달링하버 재개발을 통해 수변공간을 재창조하고 쇠퇴한 구도심의 탈바꿈을 유도함</p> <p>⇒ 시드니의 성공적인 워터프론트(waterfront) 경관 연출, 다양한 교통수단(모노레일·버스·수상택시) 확보, 중심지 연계 전략을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반영할 필요</p>		

활동국(기관)	호주 · 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황철규 부위원장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p>○ [디자인정책관] 문화시설의 사회적 약자 대상을 위한 설계 기법 적용</p> <p>-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미술관(Art Gallery of NSW) 건축설계 시, 일반인에게 공간을 개방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단 없이 전체 관람이 가능하도록 설계</p> <p>⇒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구체화 및 점검 세부화 계획 마련 필요</p> <p>○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사회적 약자 지원 기구에 대한 지원 방식</p> <p>- 오클랜드 남부 웰빙위원회 등의 PBI(Place Based Initiative) 운영 관련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지역의 PBI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중앙정부는 각 PBI에게 상당부분 자율권 부여</p> <p>⇒ 서울시 자치구간 사회적 약자 지원기구 운영 시, 지원기구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역별 맞춤형 특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성 제기</p> <p>○ [균형발전본부] 녹지공간 활용에 따른 인근 시설과의 연계 및 다양한 도시기능 확장 사례</p> <p>- 로얄 보타닉 가든 내 식물 연구시설 조성, 박람회 개최, 기념행사 등의 개최로 녹지기능 이외에 다양한 활동기능 도입</p> <p>⇒ 서울시 도심 녹지공간에 역사성과 장소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 접목 필요</p>		

활동국(기관)	호주 · 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이용균 부위원장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건		
<p>○ [도시계획국] 호주도 민간사업자 참여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 등으로 기여하도록 함</p> <p>- 호주는 민간사업자와 사업 추진 시 세부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결정하되, 각종 기부채납(지하철역, 공원, 가로수, 도로 등)을 포함하여 짓도록 계약하며, 세부사항 조율과 행정 절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 됨</p> <p>⇒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는 빠른 주택공급의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여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야 할 것</p> <p>○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뉴질랜드는 ‘웰빙’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웰빙예산’을 도입함</p> <p>-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웰빙예산을 도입하였으며 모든 예산에 ‘웰빙’ 성과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정부 정책이 뉴질랜드 국민의 웰빙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p> <p>⇒ ‘약자동행지수’ 개발에 앞서 서울시가 정의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약자동행지수’의 정책 평가지표로서의 활용도 제고할 필요</p> <p>○ [균형발전본부] 시드니 더 록스 마켓은 쇠퇴한 구시가지 역사 문화 유산 발굴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 도시재생 사례</p> <p>⇒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재생 재구조화’로 인해 역사문화 도심 재생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역사문화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재고할 필요</p>		

활동국(기관)	호주 · 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김영철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p>○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다문화 노동자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p> <p>- 호주는 백인과 다문화 노동자 간에 교육·기술 수준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정부 보조금으로 집단 간 생활격차 해소 위해 노력</p> <p>⇒ 우리나라도 세율구조 정비 등을 통한 재원 확보로,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정비 필요</p> <p>○ [균형발전본부] 토지 효율화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방향 정립</p> <p>- 호주 도시계획은 가용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프라 건설의 집약화 유도를 통해 인구의 90% 이상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p> <p>⇒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제시된, 대중교통 중심 토지이용계획기법(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의 적극적 유도 필요</p> <p>○ [균형발전본부]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서민주거단지 (Affordable Housing) 조성</p> <p>- 오클랜드 흡스빌 포인트는 과거 공군 기지였던 부지를 어포더블 하우스 정책 차원에서 신도시로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p> <p>⇒ 공공주택 조성 시, 지방정부와 제3섹터 커뮤니티 사업자의 파트너십(LP, Limited Partnership in collaboration with a third sector provider) 도입 등 새로운 개발방식 검토 요청</p>		

활동국(기관)	호주 · 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김용일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p>○ [균형발전본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여와 부작용 완화방안 마련</p> <p>- 호주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직접 개입은 지양하고 있으며,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의 간접 지원을 하고 있음</p> <p>⇒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직접 개입과 더불어 간접 지원 방식에 대한 별도의 지침 마련하여 직접 지원에 따른 부작용 완화 방안 마련 고려 필요</p> <p>○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앙 정부의 운영 전략</p> <p>- 중앙 정부는 상당 부분 지역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역에 따라 다른 사회적 약자의 특성·비율에 맞춘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 유도</p> <p>⇒ 서울시(중앙 정부)는 자치구(지역)에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과 자율권을 유도 할 필요</p> <p>○ [미래청년기획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규 택지 조성</p> <p>- 뉴질랜드의 홉슨빌 포인트(Hobsonville Point)는 과거 공군 기지 부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거지를 조성,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공급 실현</p> <p>⇒ 주거지가 아닌 기타 용도로 사용된 부지에 대한 거주지 조성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 가용용지 검토 필요</p>		

활동국(기관)	호주 · 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박상혁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건		
<p>○ [디자인정책관]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 건설 시,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경우 오페라하우스를 보러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도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 건설이 필요함 <p>⇒ 랜드마크가 되는 시설물 디자인의 경우,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디자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문화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해 본 지도부가 필요하며, 문화센터의 재단장 사업 또한 중요함(하드웨어적 요소). 또한 경제적·물리적·문화적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소프트웨어적 요소)을 마련해야 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음</p> <p>○ [도시계획국] 호주 시드니의 용도지역 결정 방법에 대한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와 서울은 도시계획 정책이 상이함, 시드니의 장점을 서울에 반영하면 세계 도시적인 요소를 갖출 수 있음 <p>⇒ 연방정부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국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하여, 주정부마다 독자적인 법령에 의해 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도 첫째, 도시계획은 시대적 상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추진되어야 함. 둘째, 도시계획은 필요시, 수정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요소가 마련되어야 함. 셋째, 도시계획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사회시스템의 형평성에 의해 계획되어야 함</p>		

활동국(기관)	호주 · 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박영한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p>○ [디자인정책관] 시드니오페라하우스 등 랜드마크 건설 시 고려된 ‘경관에 대한 설계’의 필요성</p> <p>- 호주 내 시드니오페라하우스 내부에서 바라보는 외부 경관의 모습은 설계 시작 단계에서부터 고려된 부분으로 보임</p> <p>⇒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개관 50주년을 맞춰, 지난 10년동안 순차적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장기적 진행). 또한 사무공간과 외부 경치의 아름다움은 신축 당시부터 외부 지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하며, 지형을 그대로 살리는 건축 설계와 외부 경치를 공간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p> <p>○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호주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사례, 사회적 문제와 이슈에 대한 극복 방안</p> <p>- 서울시는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국제 사회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p> <p>⇒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로서, 이민자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인식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또한 모든 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민족 정책을 수반하며, 이민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다민족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p>		

활동국(기관)	호주 · 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서상열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p>○ [도시계획국] 수변공간을 활용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시 호주 오페라하우스 벤치마킹 전략 구상</p> <p>- 호주는 전반적으로 한국 영화계 발전에 큰 영감을 얻고 있음. K-영화산업이 그랬듯이 오페라하우스도 구상 당시 몇 십년 후 문화와 관중 의식과 특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바 있음</p> <p>⇒ ‘한강 르네상스 2.0’ 추진으로 세계 5대도시 진입을 목표하는 만큼 향후 서울의 테마와 경제·문화·관광 수요 예측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등 호주 사례 벤치마킹 검토 필요</p> <p>○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지역별, 특성별 사회적약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호주 정부와 지원 기관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사례 검토</p> <p>- 남부지역만 관할하는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지역 특성별 사회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관리·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p> <p>⇒ 지역 특성별 핀셋형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자치구 내 기관이 주가 되어 움직이고 시가 협조하는 ‘다운탑’ 방식의 체계를 도입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p>		

활동국(기관)	호주 · 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허훈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건		
<p>○ [도시계획국·디자인정책관] 시민과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는 랜드마크 조성 및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축물 관리</p> <p>-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건립은 랜드마크 문화시설에 대한 시대의 요구와 시민의 열망에 따른 것으로, 이는 건축물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함</p> <p>- 또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연식(50년) 대비 내·외부 관리 수준이 뛰어나, 서울시 랜드마크 건축물 관리 시 참고할 필요 ⇒ 서울시 대표 랜드마크(제2세종문화회관·DDP 등) 조성·운영 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要</p> <p>※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 및 건립 기금 마련, DDP 등 서울시 랜드마크 관리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p> <p>○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호주 내 새로운 사회문제 대두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제기</p> <p>- 호주 내 가정폭력, 백인과 원주민 간 빈부격차 문제 등이 오래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학교 내 폭력 및 마약, 높은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 등이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됨</p> <p>⇒ ▲ 정치·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유동적으로 ‘약자’ 개념 적용, ▲ ‘약자’의 개념 확대 시 사회문제 야기 가능성이 있는 이슈 또는 집단을 선제 발굴하여 한시적으로 시범지원 할 필요</p>		

활동국(기관)	호주 · 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서준오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p>○ [균형발전본부] 시드니 달링하버는 수변공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계획 사례로, 서울시에 시사하는 바가 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내 하천은 한강과 지천을 비롯해 총 61개이며, 하천·지천은 서울시 곳곳을 관통하는 중요한 생태·문화 자원이므로,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조성 계획 수립 시 생태·문화자원을 살리는 형태로 계획을 다변화 필요 <p>⇒ 서울시 하천·지천 수변개발이 단순한 카페 공간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하천·지천의 역사성,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특구처럼 만들어져야 함. 수변개발과 동시에 이용인구 유입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생태환경 보존지역 지정도 필요</p> <p>○ [도시계획국] 오클랜드 흡스빌은 군사 기지 용지 등을 활용한 주택지 조성과 관련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내 군 부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생기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고민이 필요하며, 이전시기와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p>⇒ 난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규제 수단도 함께 필요함. 또한 주변 지역 주민, 자치구 등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함</p>		

활동국(기관)	호주 · 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이병도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건		
<p>○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오uckland남부웰빙위원회는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 협업하는 구조</p> <p>- 오uckland남부웰빙위원회는 사회복지부장관 산하 독립형위원회로, 13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인력이 파견되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p> <p>⇒ 뉴질랜드는 정권 교체(노동당) 이후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위원회(social wellbeing board)를 운영하며 상향식(bottom-up)의 정책 의제발굴과 문제해결 시스템을 도입함. 서울시도 각 자치구에 유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p> <p>○ [디자인정책관]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은 다양성을 포용한 공간 디자인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유의미</p> <p>- 사회적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 애보리진(원주민) 문화와 융합된 전시 구성, 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p> <p>⇒ 전시기획 시 다양성 포용 측면을 고려하고, '서울은 미술관' 사업에서 중단된 시민참여 문화예술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p> <p>○ [도시계획국] 뉴질랜드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공군기지였던 부지를 활용한 지역 혁신 공간 개발 사례</p> <p>- 홉슨빌은 뉴질랜드 정부의 어포더블 하우스링(affordable housing) 정책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이며, 인근 대비 최대 20% 저렴한 주택가격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됨</p> <p>⇒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할 필요</p>		

활동국(기관)	호주 · 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임만균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p>○ [디자인정책관]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은 문화예술 공간 설계 시 기존 지형 보존과 다양성 수용에 중점을 둠</p> <p>- 서울시도 향후 디자인 건축물이나 미술관 건립 시 다양성 수용을 위한 UD(유니버설디자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p> <p>⇒ 현재 공공건축물에는 UD(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노인 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대되고 있어 실제 주거단지로 UD(유니버설디자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함</p> <p>○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사회적약자 지원에 대한 타 지역과의 교류 프로그램 사례</p> <p>- 현대 사회의 문제는 세계적이며 동시에 지역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사회적약자에 대한 접근은 거시적인 접근과 동시에 지역 차원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p> <p>⇒ 서울은 자치구라는 독특한 지방자치단체의 층위가 존재함. 일정 부분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과 함께 권한을 이양하여 자치구의 문제해결력을 키워야 함. 자치구마다 인구, 거주 환경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함</p>		

[붙임자료.6]

예산 집행내역

□ **집행예산 : 금 72,169,648원**

○ **의원여비 : 금 47,272,416원**

- 산출내역 : 3,939,368원×12명 = 47,272,416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원국외여비(205-04)

○ **공무원여비 : 금 15,547,232원**

- 산출내역 : 3,886,808원×4명 = 15,547,232원
- 예산과목
 - ▶ 의정담당관,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상호결연도시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 13,600,000원
 - ▶ 의회사무처 도시계획균형전문위원실,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여비,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1,947,232원

○ **사무관리비 : 금 5,100,000원**

- 전문가 초청 간담회 수당 : 200,000원
- 통역비 : 2,500,000원
 - 일반통역비(현장방문 등), 자문료 및 전문통역비(기관방문 등)
- 기타 인쇄비, 준비물품 구입비 등 : 2,4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상호결연도시 및 국제회의 참석, 사무관리비(201-01)

○ **의정운영공통경비 : 금 2,000,000원**

- 방문기관 기념품 구입, 간담회 개최 등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 **시책업무추진비: 금 2,250,000원**

-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상호결연도시 및 국제회의 참석,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 여비 내역

성 명	집행액	예산액 (한도액)	준비금 (비자발급 , 여행자 보험)	항공료	체 재 비(달러)			
					소 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계	62,819,648	62,819,648	1,600,000	27,358,400	33,861,248	5,676,480	18,921,600	9,263,168
도문열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황철규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이용균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김영철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김용일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박상혁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박영한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서상열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허 훈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서준오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이병도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임만균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조성준	3,886,808	3,886,808	100,000	1,709,900	2,076,908 (\$1,580.6)	315,360 (\$240)	1,182,600 (\$900)	578,948 (\$440.6)
하미경	3,886,808	3,886,808	100,000	1,709,900	2,076,908 (\$1,580.6)	315,360 (\$240)	1,182,600 (\$900)	578,948 (\$440.6)
유은아	3,886,808	3,886,808	100,000	1,709,900	2,076,908 (\$1,580.6)	315,360 (\$240)	1,182,600 (\$900)	578,948 (\$440.6)
박성원	3,886,808	3,886,808	100,000	1,709,900	2,076,908 (\$1,580.6)	315,360 (\$240)	1,182,600 (\$900)	578,948 (\$440.6)